

SRC · ERC 우수연구센터 선정

향후 9년간 150억원 지원 ... 이공계 특성화 사업 박차기대



신규우수연구센터로 이용될 정보문화관은 이공계분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송광수 동문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주관하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99 신규 우수연구센터' 지정사업에서 본교가 SRC(기초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주관하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99 신규 우수연구센터' 지정사업에서 본교가 SRC(기초 과학연구센터)와 ERC(공학연구센터)부문에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차령 2개센터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전국대학중에서도 그 예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과학의 발전과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프로젝트인

이번 우수연구센터선정으로 본교는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분야의 경쟁력과 대외 이미지를 높였다. "많은 물리학 분야중 반도체물리학분야만큼은 동국대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싶다"라고 강태원 교수가 밝힌 것처럼, 이공계 분야 집중육성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SRC부문은 강태원(물리반도체 과학부)교수의 자성체와 반도체 양자구조를 결합한 Spintronics 구현을 위한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가, ERC부문에서는 이진구(전자공학)교수의 MIMIC 기반 무선통신 모듈개발과 UHQ급 무선통신 시스템 응용기술 연구를 위한 '밀리미터파와 신기술연구센터'가 선정됐다. 이는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양자

가능 반도체 재료와 차세대 광대역 무선정보통신의 핵심이라는 밀리미터파연구를 통해 기초와 응용의 상호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순열 연구처장은 "최근 5년간 센터관련 전임교원 15명 확충, 국내최초 MBE 도입(현재 3대 보유), 연구 기자재 13억 지원 및 연구공간 확충이 가져온 성과이다. 어렵게 선정된 만큼 최대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지원으로 본교는 그간 정보통신 우수시범대학, 정보통신·영상분야 및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특성 장려연구센터에 선정된 바 있다. 지원규모는 우선 1차년도 SRC 6억 7천만원, ERC 7억 4천만원이며 학교로 임금액으며, 향후 9년간 15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올해 본교 외부연구비수주액은 이미 40억을 돌파했다. 오는 9월 8일 개소식 이후, 본격적인 산·학·연 합동연구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우수연구센터가 구체적인 연구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향후 '과학동국 21'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할 숙제도 많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확보와 연구센터 대응자금을 비롯한 독자적인 연구공간 확보 등 학교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권노갑 총동창회장 명예정치박사학사 학위수여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고문인 권노갑 총동창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정치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는 그간의 민주화운동과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수여되었다.

지면안내

- 외국대학방중 기행기 11면
- 경주캠 학생회칙개정 문제 3면
-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 5면
- '범민족통일대축전'에 가다 9-10면

보리수

자비회사(慈悲喜捨)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과)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처님나라가 극락세계이다.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니, 아미타는 의역하면 무량수 또는 무량광이다. 수명이 한량없고 광명이 한량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성한 자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영원한 수명을 누리게 된다. 단 스스로 중생구제를 위해서 변화신으로 사바세계에 다시 올 수는 있다. 그러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좌우에서 모시면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두 보살이 있으니, 한 분은 관세음보살이고 다른 한 분은 대세지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이며, 대세지보살의 큰 덕은 대희대사(大喜大捨)이다. 이 대자대비 대희대사, 즉 자비회사를 보살의 네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대자심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주려는 마음이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인 것이다. 또 대희심은 남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이고, 대사심은 다른이가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다. 즉, 대세지보살은 항상 다른이들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고, 다른이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는 보살이다. 이 두 보살이 아미타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는 보처보살이라 함은, 바꾸어 말하면 이 두 보살과 같은 자비회사의 마음이 있으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보살의 마음이 되면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된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고, 일체는 자기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종관위, 법인이사후보 12명 추천

오는 11월 임기만료따라 ... 학내외, 관심과 우려 교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오현 스님, 이하 종관위)는 오는 11월로 본교 재단이 사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후보 12명을 복수추천했다. 오는 11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현 이사장인 녹원 스님을 비롯해, 벽파, 현성, 법장,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이며, 지난해 종단사태로 자격상실된 현근 스님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날 추천된 후보는 녹원(직지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보광(해인사 주지), 벽파(범어사), 현해(월정사 주지), 월서(호계원장), 종열(전회암사 주지), 정후(종회



우리는 통일꽃 ... 민족의 자주와 대인절을 위한 99통일대축전·10차범민족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렸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안양철거민대책위원회 아이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김갑주 전 부총장등 5명 정년퇴임

김종욱·장용철 전 처장도 퇴직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내일(31일)자로 퇴직하는 교직원들의 정년·명예 퇴임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공로패 수여, 총장 면담,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퇴임하는 교직원은 서울캠의 △한봉희(법학) △김창호(신라자원학) △허찬(보건계장)과 경주캠의 △김갑주(국사학) △엄기섭(경제학) 교수 등 총 5명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캠의 김종욱 총무처장겸 관리처

본사사령

- ◆ 임차장
- △대학부 1차장=양경인(불교대 불교학부2)
- △대학부 2차장=김미영(인문대 국어국문학부2)
- △기획·대학부 3차장=송재훈(경상대 경제통상학부2)
- △사회부 차장=김진아(시과대 사회과학계열2)

행정조직개편 후속 작업 한창

개교이래 최대 인사이동 ... "조직 효율성 기대"

지난 5월 본교의 행정조직개편안이 법인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후 7월 1일부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작업이 한창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개교 이래 최대'라고 하는 서울캠과 경주캠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다. >관련기사 4면 과거 '계장'급 직원이 팀제 도입 이후 팀원으로 흡수되었고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행정부서는 팀제로 운영되면서 사상 최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습니다

→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민화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9월 16일(목) 오후 5시까지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9월 16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한 통화만 누르세요 7000-119”

ARS·CMS 통한 발전기금 조성

대의협력처(처장=한보광·불교학)는 지난 20일부터 ARS기금조성, 26일부터 CMS(은행간 자동이체)기금접수 등의 새로운 발전기금조성 방안을 시행한다.

ARS는 02-700-0119번으로 한통화당 5천원이 본교의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며, 전화번호를 남길 경우 감사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CMS는 기부자와 거래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한달에 한번 통장에서 기부금이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1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약정액중류가 있다. 발전기금팀(팀장=황우열)은 위의 내용을 홍보하는 발전기금 조성 안내 리플렛을 5만부 제작, 동문과 사할을 중심으로 9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학교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용·이기화·법안스님 책 기증

“후배들 공부에 도움 됐으면”



이길용 교수 이기화 감사

사학과 이길용 교수, 이기화 감사, 법안 스님(전 불교부총장)이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에 평소 자신이 소장해왔던 책을 기증했다. 이길용 교수는 사학관계 외국서적 1천여권, 이기화 감사는 회계관계 서적과 잡지 5천여권, 법안 스님은 불교학·철학 관계서적 8백여권을 기증했다. 학교는 기증도서를 분류·등록한 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기증에 대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평소 후배들을 위해 애쓰시던 분들이 책을 전해주었다”며 “이런 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서·번역부문 연구비지원

임기중, 봉일원 교수 등 모두 7명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교원의 저술 및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저서와 번역부문의 지원대상 교원을 선발했으며 각각 6백만원, 4백만원의 연구비를 수여한다.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된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저서부문=△임기중(국문학) △박인국(응용생물학) △민병록(연극영화학) △홍광표(경주캠퍼스 조경학), ▲번역부문=△봉일원(독문학) △배의용(경주캠퍼스 철학) △최달영(경주캠퍼스 한의학)

원총, 내달 홈페이지 개설

사업공개, 의견수렴의 장 열려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박사과정 3학기 이하 원총)는 다음달 6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홈페이지에는 원총의 사업내역과 행사·세미나 공고 등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주소는 <http://www.home.dongguk.ac.kr/~dguugs>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사물의 편리를 위해 <http://www.dguugs.dongguk.ac.kr>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원총의 한 관계자는, “원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했다”며 “원총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당당한 청년학생으로 살겠다”

원진욱·구준서씨 지난달 석방

지난 97년 7월 12일 총학생회실에서 강제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적단체 가입 구성죄”, “찬양 고무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본교 97년도 부총학생회장 원진욱(사·4)씨가 지난달 31일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원진욱씨는 출소 후 “수감된 동안 동학 학우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국,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청년학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불심 검문으로 연행됐던 98년 총학생회장 구준서(전자공 4)씨도 지난 달 29일 석방됐다.

한충현 대의원직 불탈퇴로 수배생활을 해오던 중 연행되었던 구준서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동연, 대학문화 좌담회 개최

새로운 대학문화 창출 첫걸음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4(야), 이하 동연)는 오는 9월 3일 “문화 단상 그리고 현실-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학내 언론 4사와 총학생회 문화국을 비롯해 단과대 문화국, 동아리 등에서 각각 1인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번 좌담회는 80년대 저항 공간의 매개체 역할에서 90년대 대량소비문화로 나타나는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연은 오는 9월 13일부터 3일간 같은 주제로 대학문화에 대한 강연회, 토론회, 상영, 설문조사 거리 전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대·총여 등 8개단대 4개 중앙기구 중징계

상반기 총대감사결과 ... “책임성 절실히 요구돼”

징계내용	단위	징계사유
주의	불교대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경고	졸업준비위원회	감사자료 미제출, 예산지출 오차
	경상대	감사자료 미제출,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야총	감사자료 미제출,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생자대	집행부서장들이 올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예산정지2주	총학생회	감사자료 미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자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음,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정산대	예산지출 오차, 비품대장 미소유
예산정지4주	총여학생회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예산지출 오차
	예술대	감사자료 미제출,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예산지출 오차 및 방만한 지출
	문과대	감사자료 미제출, 예산지출 오차,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감사준비상대 미비
예산정지4주 및 예산삭감 50%	법과대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미비,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자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음, 예산지출의 오차,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99상반기 통상감사 결과 법과대, 문과대, 예술대와 총여학생회가 예산정지 4주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총 7개 단과대, 4개 중앙기구가 징

계를 받게됐다. 제 31대 총대의원회(의장=최진범·영문4 이하 총대)는 지난 6월 24일 총대의장을 비롯한 8개 단과

대 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앙감사특위)를 발족해 7월 30일까지 감사를 진행해 12개 단과대와 총학생회를 포함

한 5개 중앙기구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조직, 예산, 사업, 비품, 공약 등 총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번 감사는 감사시행세칙에 준해서 실시됐으며, 특히 법과대의 경우 예산삭감 50%라는 징계를 받고, 지난해에 비해 징계기준이 더욱 엄격해 지는 등 피감사주체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층 징계가 무거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총대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단위를 비롯한 모든 단위가 혁신에 대한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감사결과 징계내용 및 사유는 위의 표와 같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98학년도 후기학위 수여식 진행

원과스님 3개전공 7학기 조기졸업

98학년도 후기학위 수여식이 지난 27일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3백1명이며, 석사학위 수여자 3백44명, 박사학위 수여자 54명 등으로 각 대학

원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석사 1백25명 △불교대학원=석사 7명 △행정대학원=석사 50명 △경영대학원=석사 29명 △교육대학원=석사 67명, △언론정보대학원=석사 16명 △산업기술환경대학원=석사 27명 △문화예술대학원=석사 15명 △지역개발대학원=석사 6명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 김원과(96·불교학·선학·인도철학 전공) 스님은 3개학과 전공을 7학기 만에 마쳐 조기졸업과 동시에 세 개의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한편, 경주캠 후기 학위수여식은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오직 한 길로... 지난 27일 아침 7시, 일당이 9만5천원인 시험 감독관 아르바이트 선착순 모집에 새벽부터 모여든 학생들이 학림관 소강당에서 정보문화관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총학, 총부 제천서 여름 농활 농민·학생 하나되는 계기 마련

총학생회(회장=김희중·불교 4)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달 4일까지 총부 제천 일대로 여름 농활을 다녀왔다.

2백여명의 학생이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 미국과 IMF 반대를 위한 99 여름 농활’이라는 모토 아래 9박 10일간 일정을 진행했다.

일정 중 28일에는 제천장날을 맞아 거리선전전이 있었고, 3일에는 제천역에서 ‘충북지역 농민 학생 전진대회’가 개최돼 2천 여명의 농민, 학생이 단합하는 자리가 됐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간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미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1)770-2058 팩스 (051)770-2057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1. 파견기간 : 2000. 3. ~ 2001. 2. (1년간)
2.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파견국	파견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5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 TOEFL 550이상
일본	요코하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며 일본어로 정규과정 수혜가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불교대학	2	
	고마자와대학	2	
	삿포로대학	2	
중국	청화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중국어로 정규과정 수혜가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남경대학	2	
	상해사범대학	3	
대만	중국문화대학	2	

3. 선발방법 : 공개시험 전형(해당대학별로 상이함)
 - 가. 학교성적 20%
 - 나. 해당국어 필기시험성적 20%
 - 다. 해당국어 회화시험성적 20%
 - 라. 일반면접 40%
4. 전형일정 : 10월 중순(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실(☎2260-3876, 경주캠 770-2042)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처

2학기 특별시험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RGCC010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2	1	09:00~09:50
RGCC009	교필	실용영어2	1	10:00~10:50
RGCC007	교필	영어회화2	1	11:00~

2. 응시자격 : 99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
3. 전형료 : 과목당 30,000원
4. 최대신청학점 : 3과목(3학점)까지
5. 원서접수기간 : 99. 8. 30(월) ~ 9. 1(수)
6. 시험일시 : 99. 9. 4(토), 09:00
7.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본관 3층, ☎2260-3038)
8. 전형방법
 - 가. 컴퓨터활용과실습2 : 제시된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을 평가(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2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시험실시후 평가
 - 다. 영어회화2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9. 합격자 발표 : 9. 9(금), 09:00
10.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를 부여함.
11. 유의사항
 -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을 불허함.
 -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서울캠 교무처

재학생 등록금 수납 연장

99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수납연장 합니다.

1. 추가 수납기간 : 8. 30(月) ~ 9. 4(土)
2. 납부장소 : 제일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3. 납부방법
 - 가. 제일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납부 대상학생
⇒ 전산처리된 고지서(장학생이 전산으로 처리된 고지서 포함)를 소지한 학생
 - 나. 교내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납부 대상학생
⇒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 8월 26일 이후 접수한 복학생
 - 재입학생
 - 학점등록생
4. 유의사항
 - 가. 지정된 납부처에 필히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서울캠팩스 ☎2260-30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사무처

학생회, 학칙개정엔 적극 참여해야

총학, 탄핵안·회칙유권해석·학자추 독립 재검토 필요

지난 6월 3일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개최된 예정이었던 1학기 대의원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99학년도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회칙개정안(이하 회칙)을 보면 △제 3장 대의원 총회(업무 및 권한)=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 및 불신임 의결권 △제 4장 중앙위원회(위와동일하며 중앙위원회의 총대의원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며, 총대의·부의장을 포함한 각 단과대 대의원의 의장으로 구성됨)=불신임 및 탄핵의결 △제 5장 단과대 대의원회(위와동일하며 대의원은 각 학부·과의 과대표 중 총대에 대의원 등록한 자에 한함)=학칙개정 발의 및 의결권 △제 18장 학원자주추진위원회(재정)=학자추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총대는 학기초 각 대학들의 학생회칙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배부된 자료를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타대학의 학생회칙을 토대로 수정,

첨가 및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대가 내놓은 회칙을 두고 각 자치기구 및 학생회의 입장은 상당히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장의 불신임 및 탄핵의결권에 대해 상경대와 자연대는 "다수의 학생과 학생회를 무시한 채 의결권을 대의원들에게만 부여한다는 학생회칙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했다. 또한 불문대의 경우 "대의원들끼리 의결을 보는것은 문제가 있지만, 회칙이 통과된다면 전체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할만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상당수의 학생회 및 자치기구에서 회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 이상해(회제4)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중운위가 여러차례 무산돼 임시중운위를 통해 회칙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지 중앙위원회에서의 안전만을 걱정안에 올렸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회칙상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총학생회장을 탄핵시키기 위해선 학생총회(단, 재적인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나 대의원총회(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를 거쳐야 하는데, 2가지 안을 대등하게 놓고 볼때 현재의 대의원들의 자질, 인원수, 간선대표들이 직선대표를 탄핵시킨다는 점 등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둘째, 과거 회칙을 둘러싼 유권해석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현재의 회칙 역시 중앙위원회의 탄핵 의결 범위, 단과대 대의원회의 회칙개정 의결 범위를 포함한 여러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꾸준해 제기돼 왔던 학자추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독립성 여부 등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장과 동시에 무엇보다 개선될 사항은 △자치기구 및 학생회 대표들의 부관심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학생회칙개정안에 대한 인식·경험부족 등에서 오는 학생회 및 자치기구 집행부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그들을 뽑아준 학생들을 대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ac.kr

오늘 학술회의 개최

신라문화연구소(소장=김갑주·국사학)는 오늘(30일) 오전 9시20분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신라 시대의 불교정책과 문무왕대의 통치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학술회의를 살펴보면 1부에서는 △진평왕대의 왕권강화와 재택신앙 △문무왕대의 불교정책 △신라 하대 경무왕의 불교정책과, 2부에서는 신라 문무왕대의 △대륙속민정책 △대외관계 △대당교섭론을, 3부에서는 신라문무왕대의 △군사정책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미술 조각과 금속 공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직원 행정연수 실시

기획처(처장=이갑득·화학)는 지난 25일 원효로 소강당2에서 1백 48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직원 행정연수'를 실시했다. 행정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삼국의 △국인의역 △총장 격려사 △해의 행정 연수자 결과 보고 회 △성회총 예방교육 특강 △팀워크의 활성화 특강 △기획처장 연수교육 총평 △사후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등록금 등록률 43.64%

재무회계팀(팀장=신봉근)은 지난 23일 부터 28일까지 등록금 분할납부 및 일반등록을 실시했다. 분할납부의 경우는 △신청장소=18일 각 대학 교학과 △등록장소=교내 제일은행 △2차 분할 납부기간=다음달 10월 23일 까지이며, 지난 27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자 가운데 등록한 학생은 15명이다. 지난 26일까지 일반등록률은 43.64%인데 재무회계팀의 한 관계자는 "각 가정마다 등록금 마련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학기에 이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실시하니 학생들이 분납기간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수용소 어린이 초청

불교문화대학생회(회장=류동호·불교3)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복지수용소인 '예천연꽃마을' 어린이들을 경주월드에 초청했다. "물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초청행사는 35명의 연꽃마을 어린이가 함께 했으며 불문대 집행부를 비롯한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도를 맡았다.

멀티미디어실 신설...비디오 상영 가능

도서관(관장=이석장·영문학)은 멀티미디어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멀티미디어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총 22석의 좌석을 갖춰 신설될 멀티미디어실은 기존의 관광경영학과와 사회문화교육원의 가이드 실습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TE실습실이 대의협력처와 협력해 개조된다. 신설된 멀티미디어실에서는 △교육매체제작 △위성방송 수신 및 송출 △비디오 상영 △일일한 번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첨단시설이공과 공인자격을 취득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

경주·포항병원 의료봉사 실시

의료원(원장=조재호)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함양병원, 포항병원과 연합해 33명의 의료진과 영덕군 강구면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강구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의 진료 내용을 살펴보면 △내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피부질환 진단 및 치료 △소아관련

사회문화교육원, 국악발표회 열려

사회문화교육원(원장=임배근·경제학)은 지난 20일 경주 서라벌문화관에서 '제1기 한여름 국악교실 수료 및 발표회'를 가졌다. 66명의 수강생들이 박상진교수(국악과) 지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피리(아리랑) △대금(아리랑) △대금산조(진양조) △대금산조(중모리, 중중모리) △가야금(도라지 2중주) △시조(우조지름

시조)를 2부에서는 △민요(메아리타령, 평명타령, 방아타령, 꽃타령, 진도아리랑, 들노래) △가야금(가야금산조) △판소리(춘향가중 이별가) △타악(삼도 설장구) 등을 연주했다. 이와 관련해 임배근 원장은 "수강생들이 수강기간동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 행사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활관, 범당 설립

금강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지난 7월부터 남학생동(관음동)과 여학생동(연화2동) 중간지점에 범당을 설립중이다. 새로 설립될 범당은 정해진 예불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며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강연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문수동과 연화1동에 각각 위치해 있던 범당은 화장실이 근접해 소음 및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아 새 범당을 설립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복순 관장은 "일반학생 역시 적절한 이유의 사유를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오는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입생 신체검사 실시

보건소(소장=서정옥·일반외과)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99학년도 2학기 편입생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본교부속병원과 나눠 실시한다. 편입생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신체검사는 본교부속병원에서 결핵검사를 보건소에서 간염검사를 한다. 한편, 2학기 동안 보건소내에서는 술, 담배, 스트레스의 해악과 예방법을 알리는 의학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할 예정이다.

회전무대

신용 O...총:칼 같기로 정평남 총대 감사가, 대:단대대의원이 참여한 자체감사에서, 의:의원들은 갈광질 광해, 원:원래 감사 원칙을 지키기엔 역부족, 회:고로 회칙에 따른 시행원칙은 유명무실, 김:당연 감사 결과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 사:무슨 사적인 비밀이라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적박한 불신의 땅을 딛고 일어서는 총대는 어디에?"

오락가락

O...정보화관 1층 무단점거?! 본교가 방중에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SRC)와 밀리미터파 연구센터(ERC)에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이중 ERC가 들어서서 정보화관 1층에 4개의 강의실에는 원래 19개의 강의가 예정돼 있었다. ERC 때문에 강의실을 잘못 찾아 해낼 불쌍한 다수(?)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밀리미터파 연구소보다 학생복지 1센터 터 전진을 위한 연구소를 만드는건 어떨런지?"

그것이 알고싶다

O...기성회비 통합! 그것이 궁금하다!!" 법정 납부금인 수업료와 자발적 기부금인 기성회비를 통합해 상당수 대학이 시행하고 있다고. 이제는 구시대적인 강압적 기부금제를 폐지하고 학부모들 자금을 맡기는 진짜 기부금제를 실시할 때 됐으면, 오히려 통합고지라든. 이에 통합고지서를 받은 S교 학생 왈, "(불케이노)보다 100배는 열받고, (크래쉬)보다 1000배는 충격적이다!!"

식판위의 빨간불

O..."칼고머를 떨자?!" 서울집 학생식당 위생에 심각한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다는데. 식판·점시의 기름때는 물론이고, 수저의 얼룩과 오물 때문에 학생들 인상이 저절로 구겨진다고. 안그래도 식생활에 민감한 여름철, 보이는 위생이 이 정도인데 안보이는 위생을 믿을 수 있을런지. 이에 수저를 고르던 한 학생 왈, "식기가 더럽다 하되 풍뎉어라 설거지하다. 닦고 또 닦으면 안 닦일 리 없건만...!!"

"집에서(?) 하반기 사업을 고민했고..."

대표기구로서 학우들의 목소리 귀기울여야

'개강전까지 굳게 닫혀 있는 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중운위' 등 예년과 달리 더욱 심해진 방중 학생회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대해 학생회위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학 기간동안 대부분의 학생회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뚜렷한 사업 역시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기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회 대표자들은 "방중에도 하반기 사업을 고민했고 현재도 계획중이다"고 말했지만 학생회론은 언제나 굳게 닫혀있는게 사실이었다. 또한, 지난 한 학기동안 연이어서 중운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들을 볼 때 비단 방학동안만을 문제삼을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회장=이상삼·불교3)는 "방중에 뚜렷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출근을 통해 학내의 전반적인 시간정도는 검토하는 게 학생회의 모습이 아니겠나"면서 "중운위 또한 학생회의 대표자라면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학생회는 -분명 전체 학우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표성을 띤 기구이다. 그러한 기구속에 존재하는 학생회 대표자 역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한순간이라도 방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책임감과 주체성을 띠고 있는 대표기구로서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학생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ac.kr

<h3>일반휴학, 복학, 재입학, 조기졸업 신청</h3> <p>99-2학기 일반휴학, 복학, 재입학, 조기졸업 신청을 규정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시행하니 해당학생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관련사항을 신청하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휴학 가. 기간 : 99. 8. 30(월) ~ 99. 9. 1(수) 3일간 나. 대상자 :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자 다. 구비서류 :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2. 복학 가. 기간 : 99. 8. 23(월) ~ 99. 8. 25(수) 3일간 나. 대상자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이번 학기 복학대상인 자 ② 군복무자로 전역예정일이 개학일로부터 30일내(99. 9. 28)인 자 ③ 99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자로 급학기 복학을 원하는 자(조기복학) 다. 구비서류 : 복학원서(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전역증사본 1부(군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3. 재입학 가. 기간 : 99. 8. 23(월) ~ 99. 8. 25(수) 3일간 나. 대상자 : 지퇴, 휴학기간만료 또는 미등록제적자, 학사정제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자 다. 재입학 허가 : 재입학은 해당학부(과), 학년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중 최종 이수학년, 학기에 이어지는 다음학기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조기졸업 : 졸업성적이 우수하여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부(과)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임. 가. 기간 : 99. 9. 14(화) ~ 99. 9. 16(목) 3일간 나. 대상자 : 96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자로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F학점 포함)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소속대학 교학과 * 일반휴학, 복학, 재입학,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주어진 기간내 소속대학 교학과로 신청하여 차후 미신청으로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h3>9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실시</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 99. 9. 1(수) ~ 9. 3(금) 3일간 2.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및 도서관 정보검색실 * 각 대학별 수강신청 장소는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할 것 3.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인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 4. 대상 : 99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편입생, 복학생 포함) 5. 초과학점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과락(F)이 없고 평점 4.0이상인 자는 학업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3학점까지 초과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대학 교학과에서 신청한다. 6. 유의사항 가. '컴퓨터 실습(2학점)'을 미 취득한 학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99학년도부터 변경·개설되는 '컴퓨터활용과 실습1'(1학점, 1학기)과 '컴퓨터활용과 실습2'(1학점, 2학기)를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실습실에 입학한 후에는 다른 학생의 신청을 위하여 신속한 시간내에 신청을 하고 퇴실을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수강신청총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 컴퓨터실습실에 대기중인 조교에게 문의한다. 	<h3>99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안내</h3> <p>99학년도 제2학기 특별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응시 희망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99. 9. 4(토) 09:00 ~ 2. 시험과목 : 영어회화 II(1학점), 실용영어II(1학점), 컴퓨터활용과 실습II(1학점) 3. 신청과목 : 3과목까지 신청가능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9. 9. 1(수) ~ 2(목) 나.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2.5x3.5cm 증명사진 첨부) 5.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1학년 복학생 포함) 6. 전형료 : 3과목당 30,000원 7. 합격표시 : 합격한 학생은 해당 과목목을 이수하지 않고 A, A로 평가 8. 시행방법 : 필기 및 실시 Test 9. 시험시간표 발표 : 99. 9. 3(금) 15:00, 학사지원실 10. 합격자발표 : 99. 9. 10(금) 15:00, 학사지원실 11. 기타문의사항은 학사지원실(☎770-2036~2037)로 문의할 것
--	--	---

퇴임교수 인터뷰



한봉희(법과대 법학과) 교수

“제자들이 큰 바다에 나갈때가 보람”

“아직 몸이 건강하네 나이가 많다고 퇴임을 해야한다는 것이 섭섭하지. 하지만 한편으로 퇴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네.”
정년퇴임이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며 지금의 묘한 심정을 담담히 담아내는 법학과 한봉희 교수.
그는 수 십년간 연구실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을 정리하며, 서서히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전북대에서 민법을 전공,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교수님들의 권유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계속 학교에 남기로 한다. 한 번도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그의 주변사람들은 그를 ‘나 이막은 대학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늘 시간을 아껴 학문정진의 길을 걸으며, 제자들에게도 항상 “성실한 법학도가 될 것”을 주시킨다고 한다.
“나는 시냇가에 서있는 나무와 같지. 수많은 제자들이 내 앞을 사뭇물처럼 흘러갔다. 그들이 큰 바다로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
학생들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교수에게는 학생들과 대화하고 지도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민법 중 가족법연구에 일생을 바쳤지. 업적이랄건 없고, 77년과 90년의 가족법 개정과 올해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것이 내 연구의 결실일따라.”
한국가족법학회 전회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가족법에서 남녀평등·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가족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제가족법학회와 한일가족법학회 등의 국제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의견을 개진하여 가족법의 국제교류에도 ‘새로운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듯 일생을 학문연구에 충실했던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곳이 대학”이라며, “황금같은 젊음의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탐구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학문연구와 학생지도의 한평생을 살았고, 학문연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며,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한교수. 40여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학교 밖으로 내딛는 한교수의 모습은 ‘자신감’ 그 것이었다.

〈신〉
sinnim@cakra.dongguk.ac.kr



김갑주(인문대 국사학과) 교수

“스스로에 대한 탐구 계속했으면”



염기섭(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앞에 놓여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신〉
sinnim@cakra.dongguk.ac.kr

책이 사방에 뿔뿔히 퍼져있고 난빛 향기가 가득한 방안에 김갑주(국사학과) 교수가 서 있었다.
“퇴임하더라도 마음은 대학에 머물것인데, 국사학과는 1회부터 내 손을 거쳐갔고 경주에 신라문화 연구소도 내가 만들었지. 동국은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아.”
옛일을 돌이키는지 김교수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81년 이후 급년까지 3년간의 부총장직임, 신라문화연구소장, 도서관장, 교무처장 등 많은 기관의 보직을 맡았던 김교수는 “사실 보직이라는건 한번은 해야하지만 오래할건 못해”라고 전공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행정직과 학과연구를 병행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되살리던 김

“남이 가지않는 길을 개척하는 것은 답연코 내 몫”으로 여겨왔던 염기섭(경제학)교수. 그는 60평생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왔다.
“교직에서만큼 내가 뿌려놓은 씨앗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할수 있는 정력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는데 지금 떠나야 한다는 것이 섭섭할 뿐”이라며 아쉬워하는 그에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인터뷰로 정년퇴임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듯했다.
그는 대학원 이후 연구소를 거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는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까지 실무직으로 있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정착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 산 지식인이었다. 그런 그가 대학강단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무한한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지대 신림지원학과 김창호 교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자

교수는 재직중 특히 기억에 남는일을 물어보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작년 물난리로 인해 많은 동국인들이 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일이지.”
김교수는 그때 동국 3주제가 하나되는 것을 보며 동국인의 단결력과 봉사정신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캠퍼스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교수는 잠시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경주에 필요한 지역성애에 맞는 특성과 교육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서울캠퍼스로부터 독립하는 일이지. 난 경주캠퍼스가 앞으로 독립성을 더 강화해 언젠가는 독자적 캠퍼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해”라며 경주캠퍼스의 앞날을 걱정했다.

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는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
경제학은 역사속에서 증명이 가능한 이론을 다루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실증과학이기에 실물경제를 충분히 접해본 다음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산 경험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것이 계기가 돼 15년전부터 강단에 서게 됐다.
그는 맹목적인 주입식 강의가 싫어 최근 6년간 3학년 수업에 ‘경제세미나’란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경제지표에 대해 분석, 연구, 발표함으로써 교수와 학생간의 1:1 수업을 한 바 있다.
지식제공의 수준에 불과한 현 대학강의는 10년전의 원리를 가르쳐줄 뿐이라며, “내 수업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모습과 증강무렵에는 스스

그리고 김교수의 대학시절과 지금의 모습을 보고 비교해 달란 질문을 받자 “요즘의 학생들은 사상의 빈곤에 빠져있는데 아닌지 모르겠어. 국제화 개방화다 해서 외국어와 컴퓨터에만 비중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탐구는 게을리 하는거 같아.”라며 걱정을 하던 그는 “사회과학이나 철학 서적을 읽고 사상의 결함을 틈틈이 채우길 바란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자들을 위해 내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며 퇴임후엔 “나 또한 전공분야를 더 깊이 공부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친 그의 모습은 이제 막 추수를 끝내고 허리를 펴는 가을 농부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미〉
dg19910520@mail.dongguk.ac.kr

로 ‘경제세미나 발표논문집’까지 제작해 놓은 것을 봤을때 제자들을 가르친 보람을 느꼈다”며 부끄럽지 않은 강단에서의 삶을 얘기한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동안 노동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한국학에 대한 낮은 길을 걸을 것”이라며, 끝으로 그가 제작중 학생들에게 늘 해왔던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일상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한다”고
제자들은 짐짓같은 열기속에서 붉게 상기던 그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그 하얀 분필가루가 뒤뉘박이 된 손과 양복지고리에서 묻어나는 그의 식지않은 열정은... 또 하나의 시작일뿐이라고.
정희경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본교 행정조직개편 1면에서 계속

서울캠

개편부서명	주요기능	개편전
정각원	- 생략 -	정각원
학사지원실	교육프로그램 기획, 학사 모형 개발/평가, 교과과정 관련 사항, 각종 수업 지원 총괄 업무, 계절학기/특별시험 운영, 졸업사정·복수전공·조기졸업 학생 이동보고/학적관리, 학적관련 증명 발급, 성적 처리 업무, 학사에 관한 상담, 각 대학 학사업무 협력지원	교무과 학적팀
학생생활실	입시전략 기획·홍보, 전형계획 수립, 입학·편입학 시험 관리	입학과
학생복지실	학생복지/상벌, 학생기구 활동 지원, 장학업무/학생증 발급, 학생 문화활동 지원	학생과
학생상담실	학생 생활 상담, 유학 및 타대학 교류 상담, 학생생활 관련 조사 연구	학생생활 연구소
취업지원팀	학생취업 및 취업 관련 업무, 취업관련 홍보 및 교육	취업과
연구개발팀	연구기금의 조성, 연구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과 홍보, 산학연구공동 연구/상호교류 업무, 교수업적평가 업무, 국제교류 업무 지원	연구부 학술교류부
연구지원팀	연구비 및 연구지원보상금 관리, 학내 연구기관의 종합 지원·관리, 기타 연구활동 지원 업무	연구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 업무(자매대학 등)	학술교류부
총무팀	일반사무 및 문서처리 업무, 각종 행사 진행 및 지원, 차량/환경미화/경비 관리, 예비군·민방위·비상 기획 업무, 병사 상담(입영 상담 및 학생예비군 업무 등)	경리과 관재과/시설과 비상계획과 장학과
시설관리팀	시설 및 비품 관리, 제반공사설계·인허가·시공 감독 및 검수, 기계·전기 설비 관리/영선 관리	관재과 시설과
재무회계팀	자금 운용 관리(세입, 세출, 결산), 등록금 수납 및 현금 출납 관리, 제 부서의 지급/체제공과금 처리, 교환공제회 사무/각종 기금 관리	경리과
구매팀	교육용 기자재 구매, 제반공사계약, 각종 물품 구매, 제반공사계약	구매과
정보관리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전산자료·네트워크, 하드웨어 관리, 교내 통신 관리	정보관리처 시설과
여학생지원실	여학생 상담 및 활동 지원	여학생부처장실
중앙도서관	도서 구매/등록, 학술정보전산화 관련 업무, 도서 분류 및 정리	사서과 구매과
학술정보서비스팀	열람실, 자료실 관리, 학술정보 제공 서비스(전문사서제 운영)	열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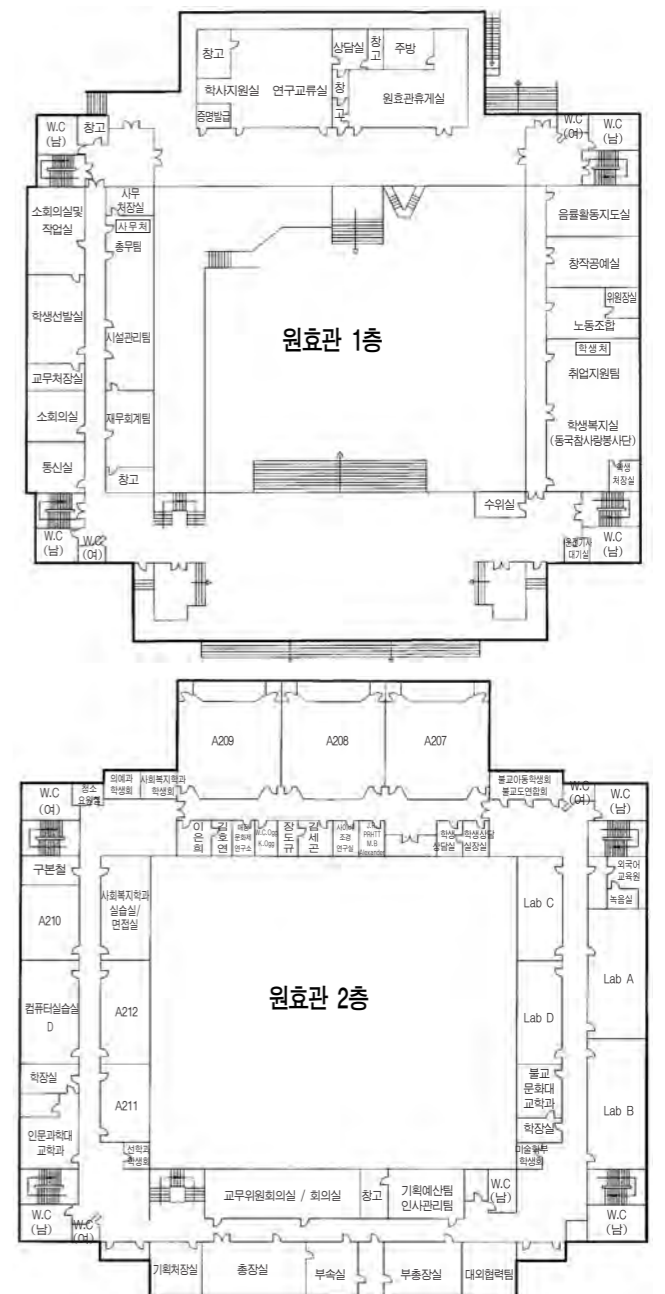
◇ 보직인사발령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장=박거덕(수학) △교무처장=신재호(전자공학) △사무처장=황영수 △비서실장서리=류풍운 △언어연구교육원장=조외연(영문학) △대학원 교학부장=김해중(통계학) △행정대학원 교학부장=이형우(행정학) △경영대학원 교학부장=김동철(회계학) △산업기술원장대학원 교학부장=김영태(전기공학) △연구처 연구개발팀장=이건(사회학) △학생처 학생상담실장=정진환(교육학) △여학생실장=김영순(화학) △자연과학연구원장=박인국(응용생물학) △산학기술협력센터소장=백수현(전기공학) △교무처 학사지원실장=이병천 △교무처 학생생활실장=이종석 △학생처 학생복지실장=신상규 △언론정보대학원 교학부장=신일식 △체육실장=박상호 △출판부장=최창선 △교육방송국장=이범수 △기획인사처 기획예산팀장=김준호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장=문옥래 △기획인사처 심사팀장=조원생 △대의협력처 발전기금팀장=황우열 △대의협력처 기획사업팀장=이강현 △대의협력처 홍보팀장=신관호 △연구처 연구지원팀장=김철석 △사무처 총무팀장=오광진 △사무처 구매팀장=이천중 △대학원 교학과장=이성진 △사회교육원 교학과장=차준환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경주캠

개편부서명	주요기능	개편전
기획예산팀	발전기획 및 실행사업계획, 예산계획·배정, 통계·심사·평가·감사, 제규정 관리	기획홍보과
인사관리팀	교원·직원인사, 교육연수·복무, 복지후생	교무과 총무과
대의협력팀	기금조성관리 및 대외협력활동,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부총장 보좌	1학부/1실/1부 기획홍보과 부속실
학사지원실	교무·학사기획, 학사관리운영·지원, 학적관리·상담	교무과 학적과
학생생활실	학생생활(기획·홍보·관리), 연구교류실	입학과 학술연구부
연구교류실	연구개발기획 및 교원연구업적관리, 연구기금 조성활동, 연구지원관리, 국내외 교류지원	학술연구부
학생복지실	학생생활지원·지도, 장학관리, 사회봉사지원	학생과 장학과
학생상담실	학생상담, 취업지원팀	학생과 취업과
총무팀	행사·행정지원 및 일반관리, 구매·계약사무, 민방위·예비군관리	총무과
시설관리팀	건축·공사관리, 시설·비품 유지관리 및 영선관리,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관재과 기초과학센터
재무회계팀	회계관리사무	경리과
정보관리실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서버·정보지원·네트워크·실습실관리 및 A/S, 컴퓨터실습 운영관리	정보관리처 컴퓨터교육원
여학생실	여학생상담	여학생부처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	지역개발대학 학사관리지원, 서울캠퍼스의 일반대학원·행정대학원·교육대학원 교육업무 지원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 일반대학원 교학과
도	도서관 관리운영사무, 학술정보분류 및 DB개발 전자도서관 관련사무	사서과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서비스(일반사서/전문사서)	열람과



안중욱 △기획인사처 기획예산팀=유재동, 신기훈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이경석, 박희상 △기획인사처 심사팀=박동수, 김용석, 신하균 △대의협력처 기획사업팀=김진환 △교무처 학사지원실=박광호, 박근서, 주현석 △연구처 연구지원팀=황의돈 △학생처 학생복지실=김중성 △사무처 총무팀=박종권 △사무처 구매팀=김중호 △불교대학원 교학부장=김은길 △경영대학원 교학부장=김성근 △산업기술원장대학원 교학부장=이광구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조경진 △법대 교학부장=나병욱 △사과대 교학부장=이창학 △공대 교학과=손덕성, 임조경 △야간강좌교학처 교학부장=박만규 △체육실 체육부장=문용주

▲경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장=신준문(수학교육) △기획처장=이갑득(화학) △학생처장=홍광표(조경학) △야간강좌 교학처장=이준성(법학) △사무처장서리=백우석 △정보관리실장서리=조영석(컴퓨터학) △도서관장=이석장(영문학) △학생처 학생상담실장=이인수(국문학) △사회문화교육원장=임배근(경제학)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윤식(회계학) △지역정책연구소장=박병식(행정학) △중국어언어교육연구소장=손동진(경제학) △전자상거래연구소장=

김의창(정보산업학) △난치병 환·양방 치료연구센터소장 서리=남경수(의학) △교무처 학사지원실장=차선구 △교무처 학생생활실장=김중진 △학생처 학생복지실장=하정운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장=서병수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채찬호 △기획처 인사관리팀장=정창현 △기획처 대외협력팀장=황주환 △학생처 취업지원팀장=김용기 △사무처 총무팀장=오종호 △사무처 시설관리팀장=한태호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장=이건배 △산학의과대학 교학부장=안석호 △금강생활관 관리과장=김현배 △사회문화교육원 교학과장=정성호 △기획처 기획예산팀=박용하 △기획처 인사관리팀=김영수 △기획처 대외협력팀=김중진, 정문환 △교무처 학사지원실=신익중, 성일수 △교무처 연구교류실=김근목 △학생처 학생복지실=이진영, 권기수 △사무처 시설관리팀=문재욱, 김경호 △인문대 교학부장=한병모 △자연대 교학부장=최정훈 △자연대 교학과=김경표 △법정대 교학부장=주재권 △상경대 교학부장=권순정 △한의대 교학부장=박두관 △야간강좌 교학처 교학부장=이상기 △사회문화교육원=최현익 △벤처창업보육센터=한동주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인사발령은 지면관계상 생략)

국가보안법 개정 난항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요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들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의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던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반발에 밀려 현재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제10조(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의 부분적 개정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서 있다. 이러한 극히 부분적인 개정방향이 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시비를 걸며 입에 거품을 물고 국가보안법 개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색깔론 시비, 시대착오적 매카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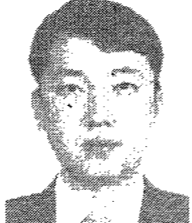
한나라당의 색깔론 시비는 한마디로 말해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일 따름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의 요지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 현실을 외면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대착오적인 전쟁의 마법에 걸려 냉전시대에 유효성이 떨어져 나옴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하며,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금강산 관광이나 경수로 건설 합작투자 등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평화통일의 당위성 속에서 북한을 더 이상 대립적인 적대관계로만 보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터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러한 상식을 부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갔다는 것으로 잡임·탈출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북한이 정식 국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로 불법으로 감점하고 정부를 칭하는 반국가단체라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용인 아래 유엔에 가입한 사실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불가능하게 된다. 해방 직후 분단고착화와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을 오로지 적으로만 보아야 했던 과거의 시대상황 속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당연적인 요청인

수구세력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폐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 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전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그대그대 집권세력의 '정권안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을 따름이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가 되듯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는 이 시대 민족민주운동의 역사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평가를 내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역사이지 않겠는가? 그들은 진정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정권을 빼앗긴 과거 독재정권의



김도형 변호사

잔당인 수구세력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 찬양·고무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개폐를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고,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여전히 국민의 사상과 양심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김현철 사면과 양심수

김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방침 이후 여당은 지난 25일 천안고무죄(제7조)와 불고지죄(제10조) 조항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당리당략을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의 '색깔논쟁'으로 대표되는 당쟁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번란할 것을 목적으로한 반국가단체'(제2조)로 정의해놓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과도 맞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본교 학생회장들 역시 '국가전복을 꾀하는 자'들이다.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진욱 97학년도 서울캠 부총학생회장, 구준서 98학년도 서울캠 총학생회장, 구장주 97학년도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길게는 2년동안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96학년도 총학생회장 유병문씨는 조계사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4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정부의 사면조건인 준법서약서를 쓰기 거부한 채 감옥에 있다. 이미 준법서약서의 부당성은 당사자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미에서 수없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약 5백여명의 시민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모습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6개월만에 사면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YS와의 '동지애적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김대통령의 결정은 사면보다 정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당리당략을 위해 몇 개조항의 개정으로 일축한 여당의 결정과 맥을 같이한다. 정치적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대다수의 요구쯤은 무시할 수 있는 정부의 처사가 착잡하기만 하다.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해 놓은 채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인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이렇게 양심수가 사라져야 국민의 정부가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새천년의 교육과제

어느덧 21세기도 낱알 낚지, 아니 대학생할로는 1학기밖에 낚지 않았다. 격동의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다. 금세기 후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위한 발버둥 그 자체였다. 그 대가로 고도로 성장을 이룩했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남부럽지 않은 한 때를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IMF라는 현실에 온 국민이 허리를 졸라 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의 이 고통이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높이 나는 새의 추락이 더욱 비참하다'는 말처럼 고도의 성장을 맞 본 추락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사회가 남겨놓은 것은 경제불황만이 아니다.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바로 경제성장의 욕망에 못지 않은 교육적 열망이 그것이다. 경제성장을 외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와 함께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갈망과 불황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성장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교육적 열망과 병행된 것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교육의 중심에 위치해 있던 대학교육의 방향성 제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새천년을 맞이하는 대학에 있어서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도입, 학부제로인한 유대관계 파기와 경쟁위주로 인한 공공성 파괴, BK21을 통한 차등지원 정책 등 대외적인 변화 물결로 대학구성원들은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인데 교육의 공간을 그 자체로 두느냐, 아니면 사회구조에 맞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이 두가지 것들이다. 교육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오직 삶과 경제에 집중시켜서는 안된다. 교육은 교육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은 그러했다. 하지만 현재는 경쟁논리만으로 대학을 잠식하려 한다. 교육의 공간에 있어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변하기만을 기다려야한다.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인간을 형성시키는 교육을 좌우하게 된다면 우리의 21세기는 또다시 20세기후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업료 기성회비 통합 논란

“기성회에 가입한적 없는데요”

내년부터 기성회비 사실상 통합...투명성 여부 가려야

등록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있다. '가입한 기억이 없는 기성회'에 회비를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유명무실한 기성회의 존재와 기성회비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학기 몇몇 대학 학생들이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연승일, 국민대 총장) 주최로 열린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수도권 지역이 있는 사립대학 총장들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징수하는데 전격 합의, 이 사안에 대해 공동 보조조기로 해 기간적합 시비를 논란을 벌여온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해기를 약속하는 듯하다. 그러나 서울시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당장 이번 학기부터 통합징수를 하겠다는데 비해 본교는 기존의 방식대로 분리징수하고 있어 2000학년도 등록금 통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성회비는 대학구성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내는 자율협찬금 성격의 기부금이다. 그러나 수업료만 국고보조로 이뤄지는 국공립대학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했던 관행을 사립대학에 그대로 적용해 등록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해온 것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재정이 확충되고 재단의 전입금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데도 교육부는 기존에 기성회비 20% 세급감면 혜택을 통합 이후에도 부여한다고 발표하는 등 통합 징수를 은근히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킴으로써 징수를 공공연화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교육비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수업료와 구별 없이 학교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합의 주된 이유였고, 모집단위 광역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학점등록제와 복수전공이 정착되면서 전공별 등록금 차등화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 통합징수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대학 학생들은 불투명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하는 것은 내년 '수업료 인상의 전조'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 이선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정권의 문제임에도



학교별로 대리 전을 시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한다"며 "다른 학교 투쟁을 지켜보면서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재단 이사회 선거에 맞춰 교육재정확보라는 재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팀의 김준호 팀장은 "사립학교법에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징수하던 것일 뿐 결국 학교운영비로 쓰이는 마찬가지"라며 "장학규정이나 행정기반 등 변동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줄속처리하지 않고 좀더 연구 검토 한 후 큰 마찰 없이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해 본교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은 사실상 이번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고려대, 한양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납부거부 연서운동을 펼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등 기성회비 징수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하기 이전에 기성회비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투명성 여부를 가리고 새로운 통합 방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단의 전입금 확충과 정부의 공공교육비 예산의 증감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fra.dongguk.co.kr

대학별곡 제6계명 개강편

포항제철은 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풀무질을 할 때

옛 선조들은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에 풀무질을 것을 차려놓고 약해져 있는 불을 달구곤 했습니다. 담금질을 통해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불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마음 속의 풀무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학동안 내태해졌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더욱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의 불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학기인 만큼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개강이 되길 바랍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www.posco.co.kr

* 풀무 :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골동품, 손풀무의 두가지 있음.

9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들



(사진은 박사학위 수여자)

박사 학위

▲오지연(철학박사)=천태지지의 원돈지관 연구 △65년생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
▲김치운(철학박사)=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전용 연구 △58년생 △분교 행정학과 졸업
▲김주경(철학박사)=승조의 연구 △69년생 △분교 불교학과 졸업 △분교 사회교육원 강사
▲권경임(철학박사)=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 △55년생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졸업
▲박범준(철학박사)=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48년생 △중앙대 음악과 졸업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원졸 △중앙대 한국음악과 교수
▲황정수(철학박사)=경허·만공의 선사상 연구-덕숭산문 형성을 중심으로 △56년생 △경주대졸 △삼사 부주지
▲안삼경(문학박사)=영어 동명사와 부정사 보문의 통합미학적 연구-노력동사(effort verbs)를 중심으로 △54년생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서울보건대, 수원여대 강사
▲박선경(문학박사)=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에 관한 연구 △54년생 △이화여대 동양학과 졸업 △용인대 조교수
▲전창범(문학박사)=중국 고대 불상 장신구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종교적 의미를 중심으로 △56년생 △분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분교 강사

▲정효현(법학박사)=군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현행 군 복지관계법의 검토와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48년생 △청주대 법학과 졸업 △국방대학원 교수부 직무교육실장
▲정현수(법학박사)=효적의 신권제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65년생 △분교 법학과 졸업
▲이흥형(문학박사)=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47년생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졸업
▲이세구(정치학박사)=하버마스의 민주주의의 기획에 관한 연구-의사소통 행위론을 중심으로 △60년생 △분교 영문과 졸업 △분교 강사
▲이홍준(정치학박사)=지붕 이수광의 실학사상 연구 △45년생 △새정치국민회의 교육특위 부위원장
▲정진(정치학박사)=WTO체제의 성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66년생 △분교 정의과 졸업 △분교 강사
▲이준호(정치학박사)=한국 역대 정권 하에서의 통일정책 특징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45년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김상문(정치학박사)=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 연구-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55년생 △한국외대 아랍어과 졸업 △한국외대 강사
▲이만영(행정학박사)=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주요국가와 한국의 사례비교 △49년생 △조선대 법학과 졸업 △김홍일의원 보좌관

▲정윤길(행정학박사)=지방공공서비스의 위탁계약 관리과정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교통관련서비스를 중심으로 △60년생 △분교 행정학과 졸업 △분교 강사
▲박정택(행정학박사)=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시노인의 생활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41년생 △한국방송대 경영학과 졸업
▲김형택(행정학박사)=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59년생 △용인대졸 △중앙승가대 부교수
▲안동규(행정학박사)=공직연금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46년생 △한국방송대 경영학과 졸업
▲김석현(행정학박사)=조직간 네트워크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국제교육 교류업무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49년생
▲이순길(법학박사)=민영교정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42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강경선(경제학박사)=농업생산자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39년생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제주신문 논설위원
▲진관훈(경제학박사)=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 △63년생 △제주대 사회교육과 졸업 △제주한라대 강사
▲이홍복(경영학박사)=전자거래이용 고객의 만족제고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53년생 △분교 경제학과 졸업 △강원대 강사
▲박원기(경영학박사)=TV 매체도달률

추정에 관한 연구-BBD모델의 모수추정방법 수정을 중심으로 △61년생 △분교 경영학과 졸업 △분교 강사
▲강시철(경영학박사)=선택대안간의 범위변화가 유인효과와 타협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범위역치이론을 중심으로 △61년생 △고려대 문과대학 △(주)네셔널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
▲정봉두(경영학박사)=정기선 해운동맹 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53년생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현대상선 금강산 사무소장
▲조원길(경영학박사)=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국제기업간 거래를 중심으로 △68년생 △건국대 무역학과 졸업 △강남대, 경원전문대 강사
▲김범중(경영학박사)=국제물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연구-부산항,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중심으로 △60년생 △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직
▲고광이(이학박사)=종규화 측면우도 함수에 의한 관심모수의 최우추정법에 관한 연구 △62년생 △분교 통계학과 졸업 △분교 강사
▲김선웅(이학박사)=이원 증화에서의 관리적 선정에 관한 연구 △67년생 △분교 통계학과 졸업 △분교 강사
▲김종인(농학박사)=목재 및 목질관상 재료의 도막물성 개선에 관한 연구 △56년생 △삼지대 임학과 졸업
▲우종우(공학박사)=FDTD의 TEM과

hybrid-모드 종속계산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해석 △69년생 △분교 전자공학과 졸업 △분교 강사
▲이일형(공학박사)=PM-HEMT를 이용한 MIMIC 전력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67년생 △분교 물리학과 졸업
▲김보원(공학박사)=방향과 위상관계를 위한 2D+String 표현과 추론기법 △67년생 △분교 전자학과 졸업
▲김정숙(공학박사)=외관원 문제를 위한 효율적인 분산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68년생 △분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분교 강사
▲김용환(공학박사)=계단의 안전 치수 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 △58년생 △분교 건축공학과 졸업
▲이재열(공학박사)=건설정보 분류체계의 개념적 기반과 구조원리 분석-Uniclass의 적용성을 중심으로 △65년생 △분교 건축공학과 졸업 △대원공과대 교수
▲김진(공학박사)=실내환경에서의 쾌적감과 구조에 대한 퍼지모형 개발 △60년생 △계명대 산업공학과 졸업
▲김중환(한의학박사)=금은화 약용액이 항암 및 암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 △60년생 △원광대 한의학과 졸업
▲김광락(한의학박사)=경맥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헌적 연구 △63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권은정(한의학박사)=반지련(Scutellaria barbata.D Don)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오규석(한의학박사)=A Study on Inhibition of Nicotinic Receptors by Dryobalanos aromatica △5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서만완(한의학박사)=황연의 항산화작용과 위장보호에 관한 연구 △60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김경환(한의학박사)=진회이이십사기 도인화공도에 나타난 경락기공에 관한 연구 △70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김경동(한의학박사)=금영자 추출물이 Streptozotocin에 의한 당뇨병 흰쥐의 음경 발기에 미치는 영향 △61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정인재(한의학박사)=전갈이 노화에 따른 면역반응 및 발암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62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권보형(한의학박사)=사물안신탕의 항경변 효과 및 작용기전에 관한 실험적 연구 △66년생 △대전대 한의학과 졸업 △우석대 강사
▲오용성(한의학박사)=복통과 운동이 흰쥐의 폐용성 근육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60년생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김종석(의학박사)=High Expression of NR 2B subunit mRNA and Different Neuronal Changes in Hippocampal CA1 and CA3 regions Following Hypoxia △64년생 △인제대 의과대 졸업

석사 학위

일반 대학원

▲이해선=도작의 정토사상 연구-‘안락집’을 중심으로
▲김완정=근대 일본불교의 한국내 활동과 그 영향
▲김주디=불타의 사념처 연구
▲김옥란=‘대승기신론’에 있어서 불생 불멸론 연구
▲김정숙=간화선의 무자공안 연구
▲유미영=선과 상담심리치료의 비교 연구
▲하영진=유식사상의 식개념 고탈-유식 30송을 중심으로
▲배재형=디그나가의 지각(pratyaksa)과 자각지(srasamvedana)에 대한 연구-집량론, 자각장을 중심으로
▲김혜란=전라도 풍수설화의 유형과 의식세계
▲김휘정=정자용시의 고탈상실연구
▲구인모=‘학지경’ 문학론의 미학주의
▲최운근=현대 국어 한자어 파생법 연구-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접사를 중심으로

▲이근희=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The Blue Eye
▲윤택기=The House of Seven Gables에 나타난 반페미니스트 속성 연구
▲이선영=영어의 비교구문에 관한 연구
▲이소영=영어의 결과구문 연구
▲김희정=어휘목록에 따른 초등 영어교과서 어휘선정에 관한 연구
▲유혜정=영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정연주=막스 프리아의 작품 ‘안도라’를 통해서 본 편견의 문제
▲조영수=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노부인 방동’에 나타난 모델공간 연구
▲이재민=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나타난 코러스(가수)의 기능-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과 브레히트의 ‘코카스의 백묵원’을 중심으로
▲박미숙=담화에서의 부사의 기능-부차적 기능을 중심으로
▲사연주=셀의 지향성 이론
▲강희영=자연주의적 합리성-네트의 지향적 체계론을 중심으로
▲김광주=컴퓨터화된 검사와 지필검사 결과 비교
▲이호섭=고등교육기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
▲이정연=한·일 양국의 평생교육체제

비교
▲이재근=교원의 단체교섭 발전모형 연구
▲이찬주=표현적 교육목표의 성격과 그 교육적 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철=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영재=한국지배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6월 항쟁이후 국가의 포섭과 시민·사회세력의 대응
▲진현애=합의적 노사관계 형성에서의 국가역할 연구-한국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규=지역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임창호=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환=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주병=환율변동성이 제조업 부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GARCH 모형을 중심으로
▲한승범=텔레마케팅에 대한 Image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태=평가모형에 기초한 기업가치와 주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EVA 평가방법과 FCF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정희영=기업의 규제전 전략적 제휴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성호=남북한 경제통합 환경과 모형에 관한 연구
▲김근필=기업특성요인이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진기=EVE(경제적 부가가치)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안성수=5mm채널 실리콘 JFET제작 및 특성 시뮬레이션
▲유지환=Zinc동위원소 핵의 집단적 성질에 관한 연구
▲최광혁=[¹⁴C]-Methionine 합성을 위한 on-line 합성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주성=X-11-계절적 ARIMA와 X-12-계절적 ARIMA 모형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신윤섭=공급자의 강도개선을 위한 국산 폐골판지의 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이영보=경기도 여주지역의 논과 그 주변 저미 군집구조의 생태학적 연구
▲김규범=웨이브렛 변환과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
▲이승형=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퍼지 논리 제어 방식
▲한영배=X-밴드 마이크로 스트립 슬롯 안테나
▲김정수=최소 Radial Basis Function 등

회기에 관한 연구
▲박세형=웨이브렛 변환과 심리음향 모델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김중규=혼합형 학습규칙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에 대한 연구
▲정지원=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지능 제어 시스템
▲허종근=35HZ MIMIC를 위한 AlGaAs/InGaAs/GaAs 전력용 PHEMT의 제작에 관한 연구
▲구본희=이미지데이터의 색상과 질감 정보를 이용한 인덱스 구조의 설계
▲박미화=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복합질의문 계획 생성 기법
▲김동익(한의학박사)=경맥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헌적 연구 △63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업

SF6+He혼합가스의 전자수송계수 해석
▲김일환=DC 서보 모터의 적응 퍼지 제어
▲정해광=전단연결재에 의하여 콘크리트와 합성된 강판의 좌굴강도
▲김광훈=강합성 상차형질의 압축플랜지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김정우=십자형 연직배수체의 압밀촉진효과 및 등가직경 산정
▲황민하=Top-down 공법의 강구조 건축 매립형주각부에 사용되는 스티드코넥터의 전단내력에 관한 연구
▲김정욱=아파트 옥탑의 미관에 관한 연구
▲정철우=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ISO 9000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윤희훈=인공피부를 이용한 체외 독성반응 시험에 관한 연구
▲양성문=폴라렌 및 세포간 상호작용이 쥐 일차 간세포의 간 특이 기능에 미치는 영향
▲최양희=단량체 변화에 따른 포리에스터계 핫멜트 접착제 물성 변화에 관한 연구
▲나미경=면의 Stickiness 분석
▲홍창기=Corn-grits 압출성형의 Start-up

과 Shut-down의 자동제어

△김영민=캡슐료 자동판매기용 분발의 물성분석

△노충식=대체가공이 허용되는 가공시간 중심의 유연생산 시스템에서 기계설-부품군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재호=STL 파일을 이용한 Sloping layer의 생성 알고리즘

△강봉수=Ti-6Al-4V 합금의 고온 열부식피로 거동에 미치는 온도와 미세조직의 영향

△정근연=방사선 graft 중합법에 의한 sulfonic acid type 이온교환막의 합성 및 그 특성

△이효원=A, B, 오일의 '육각의 무지개'를 활용한 치료효과 분석

△조현이=우리나라 '헬덱' 제작물에 나타난 드라마 타치의 특성 연구

△이윤희= '선의 미학'으로 살펴 본 한국영화 미학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중심으로

△김태형=영화에 재현된 공간의 공간정치 경제학적 일본식-영화 '초록물고기'와 '강원도의 힘'을 중심으로

△염해은=저패니메이션의 장르변형 과정에 대한 연구-기본 장르 '순정/로봇메카닉'을 중심으로

△김영미=한국영화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수령에서 건진 내발', '어미', '마요네즈'의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김한민= '그렇게 김순임은 강두식을 만났다'의 35mm단편 제작과정 고찰

△백수진=선의 집산과 심상표현

△오준은=일상속에 나타난 인간내면 형상화

△고현=다원적 기억의 형상화에 관한 분인작품연구

△김상균=A study on the effect of Holotrichia on th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es in mouse

△김주성=사군자탕합창출지유방이 흰쥐의 만성설사에 미치는 영향

△전창민=단삼을 추출물이 흰쥐의 소화성 장애에 미치는 영향

△임봉수=오공추출물이 혈전에 미치는 영향

△박동완=보종인기탕이 고지혈증 유발 생쥐의 간과 신장 조직내 지방축적억제에 미치는 영향

△손현주=갑상선 기능항진증에 백강잠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

△이기성=팔백교화팔혈에 관한 연구

△권철현=수축육양성 소생병 중 '모'자에 관한 연구

△정기진=구집에 관한 연구

△박찬영=(황제내경)의 기재된 천상과 기상에 관한 연구

△전 규 일 =Immunopotentiating and Antitumor Activities of Phellodendron chinese SCHNEID

△신정식=Anti-Bone Resorption and Osteoporosis by Taeyoungjon-Jahage

△박영덕=A study on Bone Formation & osteoporosis by Taeyoungjon-Jahage Extrats

△오수석=부정주여과에 관한 연구-수제된 치방과 이의 임상응용을 중심으로

△김경훈=안신관련 한약재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신호전달억제에 관한 연구

△이상재=주경종육탕이 소의 미성숙난포란의 체외수정 및 성숙에 미치는 영향

△주왕석=반하사심탕이 CCI4로 유도된 간중독 흰쥐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고 Cholesterol식이 생쥐에 미치는 계지보령환의 항산화효과

△고원도=황련탕이 CCI4로 유도된 간중독 흰쥐에 미치는 영향

△박수영=인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생쥐의 IFN-γ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안은정=이온삼투요법을 위한 인소산의 안정성검사에 관한 연구

△노영현=요통 환자의 치료전후 요천추각 변화에 관한 임상적 연구

△신용현=신이향미 Mouse의 유도경변에 미치는 영향

△정창화=약물치료 불응성 CAPD 출구감염에서 외측 cuff 제거법의 효과

△조진용=고혈압 환자에서 Losartan과 Lisinopril의 감압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의 비교연구

△최영환=지속적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막염과 출구감염의 임상상 및 위험인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최석진=항결핵제 투여로 인한 간독성에 대한 임상적 고찰

△하동영=담도계 담석 질환에서 고식적 담낭절제술 및 총수담관 절제술과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제술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비교 분석

△조용길=중환자실에 입원한 외상 환자에서 Scoring System의 의의

△이문섭=대장직장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과 후조관찰시 혈장 CEA치의 임상적 의의

△김종민=화물운반 운전자에서 발생하는 요통에 관한 연구

△윤을식=Internal scalp extender를 이용한 두피 탈모증의 치료

△정창근=2개 전문대학생에서 흡연여부와 흡연지속에 끼친 가족의 영향

불 교 대 학 원

△박상만=도선국사의 선사상 연구

△조돈규=균여의 화엄사상 연구-주축을 중심으로

△방상복=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와 화해, 일치를 위한 연구-다석 유영모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희경=경찰관 흥기 오 ·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을 위한 일고

△박윤경=불교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순백=법화경의 복지사상 연구

△이상호=한국장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행 정 대 학 원

△권기홍=군면세 제도가 직업군인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종겸=신세대 장병의 유입에 따른 군 조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호=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재욱=조직내 집단의 갈등과 조직화 과정에 관한 연구-종합병원 조직을 중심으로

△성흥기=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에 관한 연구-강원도 철원군을 중심으로

△신현수=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관한 연구-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만족도에 관하여

△강신석=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권혁기=공무원 윤리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종훈=항공력 증강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식=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김희철=한국 국방비의 효율적 편성에 관한 연구

△손기화=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향에 관한 연구

△채수준=중국의 해군 현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류홍규=한국의 군구조 개선방안 연구

△우무진=공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인적요인에 의한 항공기 사고방지 중심으로

△황동민=한국의 공역관리 개선방안 연구-조직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강수암=국가동원 체제에 관한 연구

△이동일=한반도 군비 통제와 발전방안 연구-단계별 협상방안을 중심으로

△김학록=한국의 안전보장기구 개선방안 연구

△권윤=수도권의 안보위약요인 개선방안 연구

△황원동=신세대 병사의 효과적 지휘관리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공군 전투비행단 병사를 중심으로

△고충근=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포용정책을 중심으로

△배준태=서태평양지역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 연구-다자간 연합체제구축을 중심으로

△정순도=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노계완=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이상호=화재원인조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기호=한국 민간 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창근=우리나라 군인 주택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신일섭=치료상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권순대=직업군인의 전역후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중근=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결속과 갈등연구

△김영규=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기

△오은주=고등학생 학교복식 현황과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방안

△정수연=장애아 가족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희숙=보육시설 유형별 서비스 향상 방안-국 · 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비교

△함영자=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재희=성인 초기연령층의 사회복지

요구와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유제동=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이종구=재가노인 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최영숙=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장영순=연행의 삼계교와 무진장원의 불교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박경호=노인수용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백운성=여성 쉼터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우선=청소년 복지와 사이버 공동체 '길드'를 중심으로

△정승숙=소아암환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요구

△이수천=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민족협동 전선론

△성장현=김정일 체제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길수=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연구

△손성락=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김준석=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정책 활성화 방안

경 영 대 학 원

△김강울=국방조달업무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기=전역 군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구=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하홍열=인터넷상에서의 User 행위와 광고활용 방안 연구

△김재철=광고에 대한 감정반응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경애=기업이미지와 라면의 맛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현병희=남성 로얄셔츠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송재만=정치광고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매체 및 광고내용

△박승규=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의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금융기관 고객을 중심으로

△송승석=군수품 조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조달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안대영=EVA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와 활용에 관한 연구-W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규=여행사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EDM, SERVQUAL과 SERVPERF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재현=관광정보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Bailey J.와 Pearson S.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공윤희=대형 할인점의 고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용민=할인점의 고객만족 경영에 관한 연구

△정광선=외용 소염진통제의 소비자 구매행태-약사의 구매행태와 비교하여

△임창민=우리나라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김혜원=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선 방안

△조상현=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회계과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병봉=Open System 환경 하에서 네트워크의 보안 향상에 관한 연구-Firewall System을 중심으로

△박정선=국내 사이버 증권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수=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 중심을 전자지불에 관한 연구

△강철봉=실직자 재취직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질적 수준과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재화=전술제대 지휘관 및 참모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사단급을 중심으로

△송인재=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대=신도시의 상권분석에 관한 연구-안산시 상권분석을 중심으로

△이기명=주택금융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희봉=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활용 방안 연구-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배금석=기업의 부동산 담보 관리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 육 대 학 원

△조정남=농업계 공등학교 농업기계 관련학과의 직업교육과정 개발

△김병남=학교장의 인화 조성 수준 분석

△김범식=초등학교의 사주와 교우관계와의 관계 연구

△정인선=생활장면별 불만해소 및 자아각성 프로그램 실천 연구

△이혜숙=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중중감과의 관계연구

△홍희전=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 및 분석자료 연구

△정우영=유아교육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여혜영=유치원 원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김선태=황순원 소설 연구-모성애와 범생명사상을 중심으로

△박미영=읽기 활성화를 통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

△최선희=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자아부정-초기작품을 중심으로

△김종선=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교육의 몇가지 방법-고등학교 국어교과서(하)6, 문학과 문화(3) 토지를 중심으로

△이지숙=조선초기 여성교화정책에 대한 연구

△김영수=일제하 기독교 포교사 연구-'부흥회'에서 '성서연구' 중심으로

△송이빈=조선전기 음식금지책 연구

△김명자=조선전기 관방정책 연구-북방비어와 관련하여

△윤도현=조선전기 기술화 장려책 연구

△윤선영=수학적 사고력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남 · 녀 학생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최영실=수학교육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정경=토의식 수업이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그 형성평가에 관한 연구

△김대성=학습자료 개발 활용을 통한 자기 학습력 신장

△김태희=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이차방정식을 중심으로

△윤용식=열린 학습 과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수학학습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이규태=수준별 탐구학습을 통한 역할수 지도방법 연구-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이상신=수학교육에서 CAI 효과성에 관한 연구-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조현우=수준별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이관수=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행 평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대정=북한의 '공산주의 도덕' 교육에 관한 연구

△이재규=고교 철학교육의 현황과 수업 모형 연구

△장미숙=미셀푸코의 권력과 지식의 관계

△박은경=나이체의 초기 기독교 비판-예수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성수=조계종 전통 강원의 교육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교과목 편성과정을 중심으로

△박명호=국내 TV Computer Graphics의 대한 실례 활용분석-방송 프로그램 Title을 중심으로

△황연섭=이하응과 민영익 목관의 비교 연구

△이준규=동관화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김경임=다양한 조형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 개발 연구-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송민용=유희한 박은의 시문학

△이기범=해강 김규진의 서예-서론을 중심으로

△김대춘=만해 한운운의 한시 연구

△김용식=청소년 여가 생활과 체육활동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희숙=두레풍장굿을 통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고찰

△오수동=심상훈련과 신체병형훈련의 시차 구분이 평형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성기=레슬링 그래픽모션형 경기중 기술 사용 빈도에 관한 분석

△최하순=중학교 씨름 선수의 경기중 기술 사용 빈도에 관한 연구

△이계선=영어권 문화와 그 지도법-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승미=Long Day's Journey into Night 와 Death of a Salesman에 나타난 소외양상

△정경래=William wordsworth 의 Lucy poems 연구 - '상실'과 '회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진해=외국어 습득 측면에서 고찰해본 컴퓨터 언어 학 교재와 그 활용법

△이수미=The Glass Menagerie의 이원적 세계 연구-Schizophrenia와 관련된 자아 분열적 증상을 중심으로

△장상철=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조절체 내에 있는 철원자의 산화 상태에 관한 연구

△지연홍=한국산 팽거미과의 분류학적 재정리

△박승련=초등학교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교육과정 및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중심으로

△김인수=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식습관과 음식기호도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강화 지역 5, 6학년생을 중심으로

△박경란=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남궁귀선=대전지역 여고생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김경미=실과 교육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천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실태 연구

△김영숙=초등학교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오애란=농촌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학교과제 봉사활동과의 관계-경북경주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안영희=청소년의 과소비성향과 관련변수-경주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박순덕=청소년의 소비자 능력과 관련변수-구매기능, 사용기능, 처분기능을 중심으로

△김경자=Web에 기반한 교수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황영화=실업계 고등학교 데이터 통신교육을 위한 CAI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김기영=가내의 교수설계 이론을 이용한 인터넷 수업 CAI 설계 및 구현-실업계 고교 인터넷 수업을 중심으로

△오민호=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이용한 OTL 증폭회로 학습용 타이틀 제작

△백수정=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한 CA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초등학교 5학년 수학 중 도형의 합동 중심으로

△진정임=과목의 소설 연구-'가(家)'를 중심으로

△이재경=중국혁명문학론 연구-과발달을 중심으로

언 론 정 보 대 학

△양광진=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

△가홍우=MRP System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곽광승=국내 대학 정보시스템 효과성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성철=국내 인터넷 소풍물 이용 현황 및 소비자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정선희=중앙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 분석과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권정선=텔레비전 일일

99학년도 신규 교수 프로파일

참사람 열린교육을 이끌어간다



▲김동현(대학원 미술학과 교수)
 · 1937년생
 · 학사-한양대 건축공학
 · 석사-홍익대 건축공학
 · 박사-동경대(일) 건축사
 · 1993년 공학박사 학위취득
 · 본교 객원교수
 · 동양 건축사



▲김양수(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 1962년생
 · 학사-성균관대 중어중문학
 · 석사-성균관대 중어중문학
 · 박사-성균관대 중국문학
 · 1994년 문학박사 학위취득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요원
 · 중국 현대문학



▲장도규(인문과학대학 한문학과 전임강사)
 · 1962년생
 · 학사-본교 한문학
 · 석사-단국대 한문학
 · 박사-경기대 국어국문학
 · 1994년 문학박사 학위취득
 · 본교 강사
 · 한국한문학



▲권오윤(법정대학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
 · 1962년생
 · 학사-본교 정치외교학
 · 석사-본교 정치학
 · 박사-본교 정치학
 · 1995년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 본교 강사
 · 지역정치



▲정기하(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경주)
 · 1967년생
 · 학사-경북대 의학
 · 석사-경북대 의학
 · 1996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본교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안과



▲류준선(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경주)
 · 1967년생
 · 학사-서울대 의학
 · 석사-한림대 의학
 · 1999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 이비인후과



▲이정우(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경주)
 · 1967년생
 · 학사-경북대 의학
 · 석사-경북대 의학
 · 1999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본교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피부과



▲박성태(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경주)
 · 1967년생
 · 학사-중앙대 의학
 · 석사-울산대 의학
 · 박사-울산대 의학
 · 1999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서울중앙병원 전문의
 · 진단 방사선과



▲이구(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포항)
 · 1964년생
 · 학사-고려대 의학
 · 석사-고려대 의학
 · 박사-고려대 의학
 · 1995년 의학박사 및 전문의 취득
 · 본교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내과



▲하정호(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포항)
 · 1967년생
 · 학사-서울대 의학
 · 석사-울산대 의학
 · 1999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서울중앙병원 전문의
 · 신경과



▲정동석(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포항)
 · 1969년생
 · 학사-고려대 의학
 · 석사-고려대 의학
 · 1999년 의학석사 및 전문의 취득
 · 본교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성형외과

이상 11명

수강신청확인 및 공고

9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기간 : 99. 9. 1(수) ~ 3(금) - (3일간)
 -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 대상 : 전교생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배부 : 각 대학 교학과(아간강좌 교학과) 및 학부(과)
 - 문의처 : 각 대학 교학과(아간강좌 교학과)
 - 유의사항
 -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후 교학과(교학과)에 제출할 것.
 -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수강제한 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함.
 -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 및 각 대학 교학과(교학과)에서 확인하기 바람, 자세한 수강신청 정정 요령은 종합강의시간표내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이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별도 정정이 필요없으나, 일부 정공강좌는 학부(과)에서 지도받아 기간내 학생이 수강정정하여야 함.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지침서만 컴퓨터실습실에 입장할 수 있음.

복학·재입학원 접수

-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9. 8. 26(목) ~ 8. 27(금)
 -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 구비서류
 -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군복학자
 - 기전역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99. 7. 1 이후 전역자는 전역증 사본)
 - 전역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휴학원 접수

- 휴학원서 접수기간 : 99. 8. 30(월) ~ 9. 1(수), 99. 9. 6(월) ~ 7(화)
-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서(소정양식), 보호자 도장 지참

군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1학년(000명), 2학년(00명)
- 모집자격 : 4년제 대학 1, 2학년 재학생
1학년(88. 10. 1 ~ 83. 10 1)
2학년(76. 10. 1 ~ 82. 10 1)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9. 7. 1 ~ 9. 11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1부
 - 대학성적 증명서 1부(1학년 제외)
 - 복무연장 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 재정증명서 및 보증인의 인감, 납세증명서 각 1부
 - 병적 증명서 1부
 - 칼라사진(4×5cm) 7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검, 인성검사
 - 2차 : 면접,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99. 12. 20
- 특전
 -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전역후 일반 기업체 취업알선
- 문의처 : 학군단 서울캠퍼스 2260-8537, 8538
경주캠퍼스 700-2537, 2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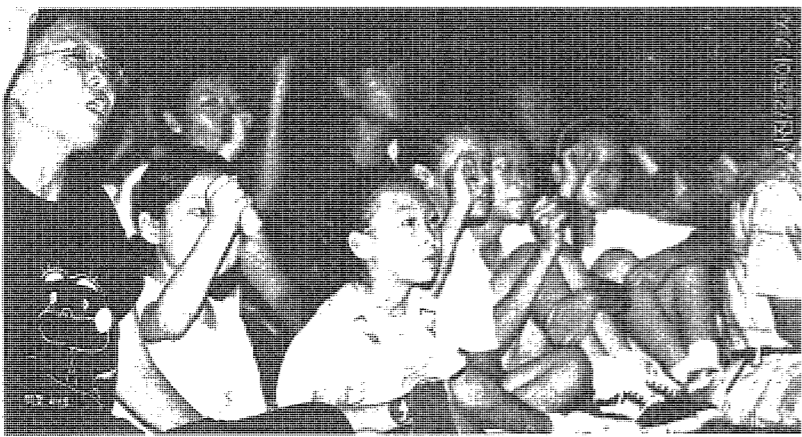
서울캠 제112학생군사교육단

2학기(제차) 언어연구교육원 특강

구분	오 전		오 후	
	07:30 09:00		16:00 17:30	18:00 20:00
ENGLISH CONVERSATION	Beginning	Michael McDowell (강의실A)	Roy Choi (강의실A)	영어회화 (Intermediate): Bridget McGrath (강의실A)
	Beginning	Robert Burgel (강의실B)	James Crossman (강의실B)	
	Intermediate	Paul Sathe (L309)	Paul Treadway (L309)	이 강좌는 매주 월, 수요일(2일)만 실시되며 직원들만 접수가 가능함(99.9.13 ~ 99.10.27)
	Advanced	Ross O' Connor (L301)	James Brache (L301)	
TOEIC	Joseph Schoussier (LAB A)	Bruce Dawson (LAB A)		
LISTENING			Bridget McGrath (LAB B)	

- 수강료 : 50,000원
- 기간 : 99. 9. 6 ~ 99. 10. 22(매주 월, 수, 금) : 총 30시간
- 접수처 : 언어연구교육원(동국관 L동 2층 : 구 외국어교육원)
- 접수기간 : 99년 8월 30일부터(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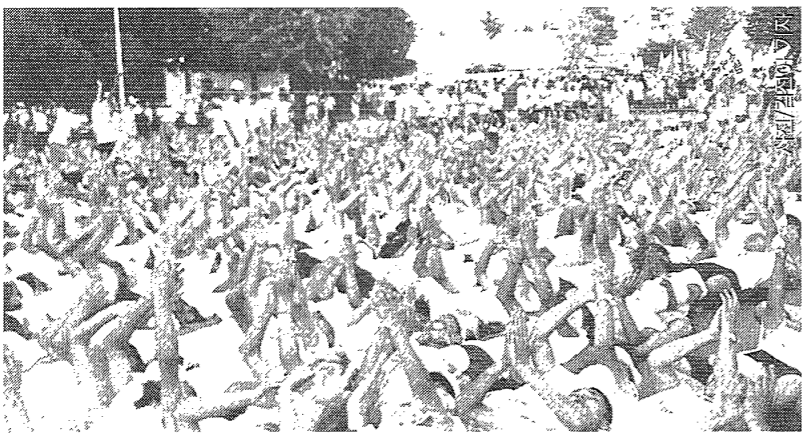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엄마·아빠와 함께 범민족통일대추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번쩍 들고 '통일'을 외치고 있다.



남·북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하는 판문점 3차 연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범민련 대표들과 참가자들이 서울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범대회참가자들이 서울대 및 주변지역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전투경찰에게 판문점 3차 연합대회 참가를 저지당하자 서울대 정문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연외시위는 모습.



15일 밤, 행사를 마치고 서울대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한 시민이 검문을 받고 있다. 이날 신분증을 제시하고도 강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5백여명이나 된다.

99통일대추전·10차범민족 대회 의의

분열된 통일운동 화합의 장 마련

전국연합·민노총 등 사회단체 대거 참여... 대중적이고 단결된 모습 보여

누구는 임진각에서, 누구는 서울대에서, 누구는 장충단 공원에서...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다함께 한자리에 모여 남북의 진정한 하나를 노래했던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사분오열되어 각자의 입맛에 맞는 통일행사를 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98년 8월 31일자 본보 특집면 중에서

민족의회(상임의장=함광옥, 이하 민화협)가 주도한 '99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거세손잡기운동'에 가리채 진행되긴 했지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오종열, 이하 전국연합)과 전국민족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갑용, 이하 민주노총) 등이 범민족통일대추전에 함께 참가하면서 과거 몇 년간의 분열된 모습에서 벗어나 민족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도시와 군단 위까지 범민족통일대추전 추진본부(이하 범추본)가 구성돼 모두 2백여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가입하면서 96년 이후 접체되어 가던 통일대회의 대중화를 상당부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범추본 지도부는 명동성당에서 민족통일운동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중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8월 통일행사는 민족통일운동 진영의 대중적이며 단결된 모습을 만들었다는 성과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12기 통일선봉대 대장 박창균 목사 인터뷰

“박수치라우! 울분이 터져나올 때까지...”

범민련 간부 체포영상 발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 할 것



박창균 통일선봉대 대장

“박수치라우!”라는 말을 통일을 위해 모인 1만여명의 시민과 청년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이는 몇이나 될까? 자신의 뚜렷한 신념을 믿으며 행사가 끝난 직후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을 진행 중인 12기 철의집사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의 대장 박창균(76세 범민련 감사) 목사를 행사장에서 만난 뒤 다시한번 지난 21일 명동성당에서 만나보았다.

의 동지적 결속과 공지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의 단위로 나뉘어 서해안의 민족지구군과 동해안쪽의 민족단결군을 거느린 선전전진을 전개했는데, 특히 마산에서의 투쟁은 통선대원들이 전경에 끌려가는 도중,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도와줘서, 통선대와 시민이 하나되는 감동을 연출해 성과가 컸다.

3만5천여명의 집회 인원도 대단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강원도 같은 지역은 최초로 범추본을 구성해 전국 모든 시·도·군에 통선대를 조직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2천년부터는 더욱 범추본을 확대하고, 통일선봉대를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도 커다란 숙제다.

양키의 포고령을 없애야만 한다.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TV에 가끔 나오지않는다. -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 승리하는 투쟁만이 살길이다. 호치민이나 레닌 같은 이들이 바로 투쟁의 역사적 인물들이 아닌가. 또한 투쟁을 할 때는 민족·통일·역사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와야만 한다. 진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과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주의나 분열주의로 흐르고 만다. 그렇지 않은가?

특별취재단

Table listing names of the special reporting team members: 김미경, 송재훈, 정세부, 유철주, 김미영, 최창호, 양경인, 이혜신, 박정호, 김진아, 김준규.

시사영어학원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http://www.sisaeng.com, TEL. 734-2442

청문외국어학원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http://www.chungmoon.co.kr, TEL. 080-738-0515

YBM 시사영어사 어학학원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TEL. 2276-0509

동대신문사 advertisement for photo services with contact info: (02)2260-3491,2 (0561)770-2057

◆ 범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자

“북한도 통일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범민족 통일대축전의 행사를 지켜보던 생활한복 치림의 민주노동 김중현(인천지역 통일위원장)씨를 만나 보았다.

- 이번 행사를 지켜보는 소감은.
-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관계로 북에 갔다가 오늘(15일) 아침에 이 행사에 합류하게 됐다. 아직 행사의 분위기는 파악이 안됐지만, 학생들이 평화시위를 지향하는 것 같다. 다만, 평화시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올해도 이 행사가 성사되어 기쁘다.
- 북한에 가서 느낀 점은.
- = 어느 장소에 가든 시민들은 우리를 환영하며 기뻐했다. 축구대회와 함께 개막된 범민족 대회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다. 우리는 범대회 참석자 대부분이 학생들인 것과 달리, 그들은 행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왔단다”

15일 새벽 관악산을 통해 행사장으로 들어왔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박옥철 교사(29세, 가명)를 만나보았다.

-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 = 10시간 동안 관악산 능선을 타고 계곡을 넘어왔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앞에 가는 풍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다. 정말 힘들었다.
-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나.
- = 지금의 교과서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북한은 못 살고 그곳의 아이들은 굶어 죽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모습만이 정부가 아님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남과 북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 공영해야 하는 한민

서울대 직원

“집에서는 모두 귀한 자식일 텐데...”

서울대 직원 김동근씨(가명)를 만나 이번 대회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 범민족 통일대축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우리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안다. 학생들이 지식인의 자격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 5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돌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매년 8·15 광복절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통일행사도 할 수 있는 날이

의 주체가 시민들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들의 모습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 김일성 동상 헌화가 문제됐는데.
- = 그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거치는 관례적 행사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의 관습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 = 조국에 대한 가장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운동은 통일운동이다. 요즘 운동에 대한 신념이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청년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죽어라는 것을 가르치려 애쓴다.

- 학생으로서 운동하던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 = 내가 운동하던 때, 특히 96년 연대 항쟁 때는 정말로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고 기다린 보람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 분열된 운동이 아니라 하나로 결집되어 가는 운동. 이것이 지금의 운동의 모습인 것 같다.
-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 = 범민족대회를 다녀왔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실된 사람들과 같이 통일을 얘기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왔다”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99통일대축전·10차 범민족대회 행사

1만 대중 참여속 성황리 개최

정부, 원천봉쇄로 일관 ... 판문점 공동행사 올해도 무산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10차 범민족대회’(이하 범민족통일대축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약 1만 여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민간통일운동세력 결집과 시민사회단체의 대거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당초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범민족통일대축전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서울대로 행사장소가 옮겨졌으며, 서울대로 들어가기 전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민족자주군, 민족대단결군)를 비롯한 각 지역총련은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쟁책동과 현 정권의 부패성,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벌였다.

5시간에 걸친 지하철 선전전을 마치고 통선대와 한총련 학생들은 오후 6시경 낙성대 역에 도착, 서울대 후문을 통해 서울대로 입성했다. 밤 10시 노천극장에서 통선대 환영대회가 진행되었고, 김양무 남측 추진본부장의 개회선언으로 ‘99 범민족통일대축전 전야제’가 시작됐다.

서울대 정·후문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경찰 원천봉쇄 속에서 통선대 환영식의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통선대의 활동에 감동했다는 한 시민은 무대위로 올라와 격려사와 함께 통일에 대한 시낭송을 하기도 했으며, 이에 박찬규 통선대 총대장은 “12기 통선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선대의 모범을 따라 조국통일을 완성하자”고 당부했다.

범민족통일대축전 둘째 날인 14일, 오전에는 국가보안법, 북한 바로알기 등의 통일강연회가, 오후에는 각 법정총련 통일



8월 15일 오전 11시 남한·북한·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된 99 제10차 범민족대회 민족회의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축구대회가 각각 열렸으며 대경총련이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4시부터는 각 지역별 결의대회가 있었고, 이후 ‘99 범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거행됐다. 김양무 대회본부장은 범민족대회 경과보고를 마치고 “도덕적 정부만이 국민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민련의 활동을 끝까지 보고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안양 철거민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아이들과 대전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노래, 각종 공연, 통일 노래한마당이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11시에는 ‘99 제10차 범민족대회 민족회의’가 남한과 북한,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공공기조분 보고 및 토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범민족 선언문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거, 연방제 통일 등이 특별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족통일대축전의 평화개최 보장과 민간통일운동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치러졌다.

이후 판문점 남북해의 3자연합대회 출정식에 참가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결의를 다지고, 정문에서 임진각까지의 진격투쟁을 벌였으나 약 8천여명이 넘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서울대 본관 잔디광장으로 복귀했다.

복귀후 동아대 총여학생회장의 사회로 ‘범청학련 결의대회 및 통일대축전’이 진행됐고, 각 지역 총련 대표자들의 결의와 정치 연설을 끝으로 자정부터 ‘범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이 치러졌다.

대회를 마친 다음날인 16일에는 참가자 모두가 서울대에서 빠져 나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다음해에 치러질 범민족통일대축전을 결의한 후 해산했다.

12기 통일선봉대

“전국을 누비며 통일을 외친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통일의 열기를 전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 서 ‘통일의 꽃’이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철의 전사 통일선봉대’다.

지난 88년 ‘6. 10 남북 청년 학생 회담 성사 투쟁’에 힘입어 1기 통일 선봉대를 결성한 후 올해로 12기를 맞이하는 이들은 범민족 통일대축전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통일의 열기를 전하는 선봉에서 그들의 몫을 해내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일 부산에서의 발대식을 기점으로 민족 자주군과 민족 대단결군의 2팀으로 나뉘어진 이들은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

합정 체결, 국보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부산, 마산, 광주, 군산, 대전 등 전국을 누비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한 통선대원은 “비가 쏟아졌는데 온몸이 다 젖어 추웠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부산에서의 감동을 전했다.

지난 4일 창원, 마산에서는 집회에 참석했던 2백 50명의 통일선봉대원 모두가 연행되기도 했다. 통선대원들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경들의 폭력행사로 한 대원이 머리에 상처를 입자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대원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자조적인 웃음을 띄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무기라고는 눈썹만큼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경찰과 그들에게 연행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손을 쓰지 못했던 사수대와 시민들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10여일 간의 긴 대장정을 끝내고 정부 당국의 탄압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동대문운동장이 아닌 서울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해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것도 큰 의미를 지니겠지만 통일 선봉대 전원이 함께 행사를 지켜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할 수 있다.

취재낙수

파파라치!!

○... 범대회=범인대회(?) 행사기간 동안 밤이나 낮이나 얼굴에 투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대학신문 사진기자를 사칭해 사수대와 한총련 간부들의 사진을 찍어 정부에 넘기는 일명 범대회판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해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에게 범대회가 범인대회와 다를 바 없으니, 이에 주변을 살피는 한 학생 왈, “과 파이스 가면 꼬~끼오, 파파라치한테 걸리면 육(獄)~이오”

다이어트

○...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 바로 살펴는 길!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범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학생들이 투쟁을 하다보면 밥먹을 시간이 없어 행사가 끝난뒤에도 먹을 걸 찾아 곳곳을 헤매었다고. 몇몇 학생들은 투쟁 도중에 쓰러지기도 하였으니, 이를 안타깝게 본 한 시민 왈 “이소라, 조혜련은 체조 다이어트! 범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통일 다이어트!”

통일=불법(?)

○...“통일을 논하지 말~라~(?)” 매년 8월이면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축제의 열기에 한창 뜨거운데, 또한 정부의 축제장소 원천봉쇄, 불법연행, 폭력탄압 등의 역할도 어김없다고,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을 노래하는 것이 왜 불법이라는 건지, 북한을 적인 아닌 동포로 본다면 국가보안법은 부질없는 것이 아닌지, 이에 한 신지식인 정부에게 의문, “도대체 통일은 못해서 안하는 건가요, 안해서 못하는 건가요?!”

한전련(?) 출범식

○...한국전경연합(?)이 사수대와 통일선봉대의 원천봉쇄로 서울대로 진입하지 못한 채 정문 앞에서 약식으로 출범식을 치렀다는데, 이날 출범식에는 8천 여명의 전경이 모여 현란한 곤봉쇼(?)와 방패쇼(?)로 출범식을 자축했고 사수대는 이를 연와, 연좌 시위 등으로 원천봉쇄, 이때 들려오는 헬리콥터 선무방송,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면 안됩니다. 어서 해산하십시오!”

매체비평

-TV편

슬픈 웃음의 대상 '시청자'

"건강한 웃음은 시청자를 웃음의 도구로만 여기는 단순 '참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하는 기회에서 만들어진다"



근래들어 시청자들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위한 도구로써 단순 참가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방식들은 기껏해야 시청자 퀴즈응답, 거리 인터뷰 등 비교적 단순하고 단편적이었음에 반해 현재의 시청자 참여는 시청자들의

참여 자체가 프로그램 전반을 이끌어가는 '칭찬합시다'(MBC)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할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속에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의 편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위한 도구로써의 단순 참가의 경향이 두드러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웃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종은 밤'(SBS) '핑크클럽'의 경우 제작진과 여자친구가 미리 약속한 상태에서 남자를 속여 여장을 시키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고 이같은 상황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보여줌으로 출연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할까요'라는 코너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출연자의 용기를 북돋아주겠다며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 무서운 놀이기구에 탈 것을 권해 출연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억지웃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SBS)중 '청춘의 꿈'의 경우 상대방 여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연해 긴장한 남성 출연자에게 추자를 요구하고 출연자가 추를 추자 '할아버지 춤'이라며 진행자들이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이밖에 웃음의 도구로 쓰이는 시청자들의 연령층 또한 무척 다양하다. '베스트 토요일'(MBC)의 '날아라 병아리'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패널티 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게 하고 어려운 단어에 당황해 하

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거나,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치료로 어린이를 데려가 진료실에서 틀리는 비명소리에 새파랗게 질리는 표정 변화를 자막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친근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인한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SBS)에서 '거 끝까지 간다'며 노인들을 어수룩하고 바보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일요일은 즐거워'(KBS2TV)에서는 대학생들을 등장시켜 코미디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만을 전하고 있어 대학생들만이 가진 젊음이라는 패기와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오락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건강한 웃음을 통해 내일을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오락프로그램은 건강한 웃음을 전하기보다는 시청자 참여라는 미명하에 잔인하고 억지스런 웃음만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 오락프로그램이 시청자와 더불어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시청자를 웃음의 도구로만 여기는 단순 '참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참여'가 이루어질 때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청자도,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도 모두가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웃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완석
매체/위/소 모니터 회원

짧은 여정 소중한 추억 - 바다 건너 대학이야기

이탈 '콘크리트 정글' 같은...

본사 3학년 부장단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에 다녀왔다. 도쿄·교토·나라·오사카 등 주요도시를 여행했는데 그중 자매대학인 동양대·용국대 방문기를 쓴다.



자매대학 동양대의 교정은 마치 도심속 빌딩숲 같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부산에서 쾌속정도로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도착한 일본의 하카다 국제여객터미널. 그 날, 6월 29일, 일본은 마침 장마가 시작돼 히로시마 등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수해를 입었다. 도쿄행 신칸센 열차를 타고 가며 지나치는 풍경들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물에 잠긴 논과 밭, 집, 도시의 빌딩, 네온사인까지도 참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7박8일간의 짧은 일본여행을 시작했다.

우리는 유스호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도쿄, 교토, 나라 등 3곳의 유스호스텔을 이용했는데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여행자를 위한 배려가 잘 돼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임을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았다. 호기심으로 들뜬 표정이 그것이었다.

일본 여행중 우리는 도쿄대, 동양대, 용국대 등 3개의 대학을 방문했다. 명문 도쿄대학의 교정은 도쿄의 도시적 화려함과 달리 1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위용을 자랑하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많았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동양대 역시 도쿄에 있다.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동양대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건물들이 뿔뿔이 들어차 있어 대학이 보기에는 대규모 연구단지에 와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우수인입생 유치를 위해 5년전부터 학교 외곽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콘크리트 건물에 활짝 피어 있는 동양대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곳의 방학은 매우 짧아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여전히 학기가 진행중이었다. 우리가 둘러본 동양대 도서관에는 많은 도서와 자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비디오텀, 음악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 방문했을 당시 소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은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수업은 교실대신 실습실에서

또다른 자매대학 용국대는 교토에 있다. 용국대 또한 동양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건물로 빼곡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인복지에 관한 실습시설이었는데 우리는 말로 배우는 그것을 일본 학생들은 초호화(?)시설에서 직접 노인 역할도 하고,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학생자치기구가 없는 동양대와 달리 용국대는 다른 현대적 건물과 대조적인 학생회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학생회관에는 학생들의 탐방새와 열정이 스며들었다. 같은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가까워진 용국대 신문사 친구들, 뜻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짓, 손짓, 몸짓은 나란한 정박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정결·질서·친절, 일본의 얼굴

일본을 여행하면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던 곳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일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역에 스티커로만 붙여있는 '임꺽은 서서 계실분, 오른쪽은 걸어서 가실분'들이 그곳에는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미 마생' 한마디만 건네도 눈빛, 몸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살피며 진심어린 친절을 표시하는 일본인들, 30분 동안 함께 버스를 기다려주던 여대생, 아까 길을 잘못 가르쳐준 것 같더니 1백미터 넘는 거리를 숨을 할딱이며 뛰어오던 아주머니, 그들은 일본의 얼굴이었다. 대규모 행사를 치르고, 아무리 관광산업 활성화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금세 갖지 못할 얼굴같다는 생각이 든 건 왜일까.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영국 '텔레토비 동산' 같은...

본교 세계화 장학학생들은 지난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영국 엑시터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외국의 젊은이들과 호흡하면서 보낸 2주간의 체험기를 들려준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정평이난 엑시터대학의 교정은 마치 텔레토비 동산처럼 예쁘다.

이름다운 엑시터대학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엑시터 대학'은 런던에서 버스로 3시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엑시터'라는 지방 소도시에 있다. 학교는 한마디로 '텔레토비 동산'이었다. 산이 없는 영국 남서부지역인지라 낮은 구릉지대에 잔디밭이 잘 다듬어져 있고 그곳에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가끔씩 토끼가 뛰어다닌다. 운이 좋으면 노루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학교는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학교측은 함께 온 우리학교 학생들을 모두 다른 기숙사를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더욱더 외국 학생들과 자연스레 친해지고 이것저것 즐거운 해프닝도 많았다.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과 함께 생활했다. 그들과 함께 살며 느낀 많은 것 중 하나는 결코 이탈리아인이 직접 만든 스파게티가 맛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실용성이 돋보이는 기숙사

기숙사는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였다. 침대, 책상, 세면대 등이 구비돼 있는 1인 사용의 방과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웬만한 가정집 크기의 부엌이 있었고 취사에 필요한 것은 냉장고와 오븐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모든 가구나 장식들은 튼튼했고 오래 써도 절대 망가지지 않을 듯한 무식함(?)을 자랑하는 듯 했다. 실용성이 돋보이는 점이었다. 실용성, 영국 여행중 종종 느낀 점이다.

학생개성 중시하는 수업

주로 이탈리아, 독일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다. 그들은 14세 중학생부터 40대 어저씨에 이르기까지, 대학생·국제봉사사·세일즈맨에 이르기까지 연령층과 직업이 다양했다. 학생수는 10명이 넘지 않았으며 한시간 반의 수업 후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오후 3시 30분까지 모두 3교시로 이루어졌다.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탓에, 시끄럽게 떠들면 안되는 우리나라 수업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였다. 많은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는 한의학, 특히 침과 기(氣)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 했으나,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Korean War(6·25 전쟁)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월드컵 공동유치에 관해 일어난 북한과의 마찰을 물어보는 학생은 우리를 당황케 했다.

편리하고 실속있는 영국여행

영국은 우리 나라보다 위도가 높아서 한여름에 가는 법 10시에 해가 지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다. 특히 영국 여행을 꿈꾸는 사람은 날씨도 가장 좋고, 해도 진 7월을 선택하라. 영국은 물가가 무척 비싼만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 그 예로, 지하철 표가 왕복이 아닌 One-way ticket에 1.5파운드, 우리 나라 돈으로 3천원 정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골 마을을 가더라도 역마다 그곳의 버스 노선지도가 구비되어 있고, 조금 큰 도시면 어김없이 안내원이 있는 2층버스가 있다.

가격은 하루종일 내리고 할 수 있는 표가 2만원 정도.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며 유명한 곳이나 건물의 건축양식,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적 도시인 경주에서 생활하는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교대상이었다. 경주도 외국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실속 있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상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비, 신사, 여왕 그리고 화려한 전통과 역사의 나라 영국. 이번 연수를 가기 전 내가 영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2주간의 어학연수는 20여 년간 가지고 있던 나의 이런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기에 충분했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이희승(한의대 한의예과2)

자유인식 램프

학교안에서

연극영상학부 하계 워크샵

본교 연극영상학부에서는 지난 여름 뜨겁게 준비한 워크샵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2학년)	9월 1일 ~4일	오후 4시·7시
크리스토퍼의 죽음(1학년)	9월 9일 ~11일	오후 3시·6시

서울캠 90주년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동국 간호인의 밤

경주캠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처음으로 '동국 간호인의 밤'을 개최한다. 동국인이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화술전시, 방문객 혈압측정, 실습실 개방, 피임법강좌 등 홍보중심으로 이뤄지는 1부와 간호인들의 마당인 '간호인 페스티벌' 등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오후 1시 경주캠 의화관 4층에서

학교밖에서

뚜라미 정기공연

홍익대 창작극 연구 모임인 '뚜라미'의 19회 정기공연, 4백여곡이 넘는 씨를 자체 창작극을 갖고 있는 뚜라미는 대내외 참다운 노래문화 형성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이카루스의 꿈'의 11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오후 8시, 4일 오후 3시, 6시 홍익대 의무관 세미나실에서

99 세계무용축제

'세계무용 1백년의 정리와 재창조'라는 부제 아래 춤과 몸짓의 축제인 서울에서 펼쳐진다. 일반인들도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연극, 마임,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행사가 준비됐다. 해외초청공연 및 국내공연, 세계무용 1백년 비디오 상영 및 강연, 각종 연구 워크샵 등으로 구성.

오는(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술의전당 등에서. 문의 (02)339-9210

폴코스 맛있게 먹는 법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법, 사랑을 확인시키는 법, 사랑을 완성시키는 법,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법, 같은 소재를 가진 네가지 작품을 마치 폴코스 정찬처럼 맛보는 연극. 카탈레타(한영은 무로) 등 요일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출품한 재미를 준다. 극단 '연우무대' 작품.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평일 7시, 금, 주일 4시, 7시(화실). 대학로 연우극장에서. 문의 (02)762-0010

메아리

대통령들의 행보

▲지난 달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산악회라는 조직을 재건했다. 현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을본래라는 민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이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조직으로 집권 당시 많은 비리를 양산해, 한동안 동우회 형태를 띄며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번엔 전면으로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신당창당으로 해석되기도 해 많은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 후 망명길에 올랐으며, 군함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독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가 믿던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록 지금은 사면이 되었지만, 5·18 민주항

쟁과 관련 학살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까지 나온 바 있다. ▲얼마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자유의 메달은 미국 내 최고의 시민훈장으로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이들이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만이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외교적인 업적 등에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역사의 평가는 무시한 채 당장의 현실적 필요와 정치적 야욕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혜를 발휘한다. 그야말로 진보된 역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될 것인가. 자고로 여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박영실 기획·광고부장
youngsp@cakra.dongguk.ac.kr

소나기

김현철

△권력자들에 정치놀음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권력자들의 세상 언젠가는 없어지길... △특바로 살지구 현철씨.



사진=김기래

△범법이라는 것이 거미줄과 같아서 새처럼 힘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작은 곤충과도 같은 서민들에게만 통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 염증을 느낀다.

△속이 쓰리다. △부패한 권력구조의 상징물이다. △한나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한 직업도 없는 나쁜 백수다.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표본!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인가. △정말 나쁜놈이다. 뽀뽀스런 놈.

△가수- 본연의 일에 열심히 한다. 죄수- 어이구 인간이... 쫓겼다. 백이 좋아서. △감현철이 한때 왕자였다는 것이 맞나보다. 난 조선 왕조가 이미 끝난 줄로만 알았다.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청년기상.

△어쩔 니 아버지랑 하는 것이 똑같나. 부전자전이라더나. △싸가지 없는 돈 싸가지고 사가지 구하러 다니신다구요? 싸가지는 사면 안 되나요? -씨네21

△아직도 차가운 독방에 있는 양심수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 △아니, 양심수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노.

△YS가 그동안 철천계 다 아를 때문이었나봐. △민가협이머니들은 여전히 보라색 수건을 쓰고 있다.

△현철? 賢哲? 혹은 玄鐵?

경주캠

도서관 “외부인 출입제한 재고해야”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거듭날 필요성 있다

21세기 대학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수적, 양적으로 팽창해왔던 지방 소재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2003년이 되면 대학의 정원 과 지원자의 숫자가 수급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아무 생각없이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대학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막상 어떻게 변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는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변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 구성원들의 화두라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경주도서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컴퓨터의 웹상으로 많

이 올라 온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요즘 와서 경주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도서관은 무조건 학교 구성원을 제외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대학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는 지역밀착형 대학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 시설을 지역사회에 일부나마 개방해야 할 것인가?

외부인의 도서관 출입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제를 강화한 하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한동해권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작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화두의 해답이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도서관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비록 경주캠퍼스 도서관의 작은 정책 결정 일련지는 모르지만, “외부인 출입 통제”라는 기존의 틀 속의 사고에서 벗어나 경주캠퍼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타 대학과 경쟁에서 이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구성원인 우리가 해야 할 최고선이 아닌가.

박정승(학술정보 서비스 팀)

개인주의 탈피를 위해

요즘을 우리 학교를 둘러보면 많은 곳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의 행정적인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작게는 우리 학우들의 의식변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학우들 사이에 팽배해져 가는 개인주의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개인주의가 80년대나 90년대 초반의 학우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습과는 드러나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학 문화의 꽃이라는 축제를 비롯해 신입생 환영회, M·T, 체육대회 등의 놀이문화만 하더라도 예전엔 각 학과의 깃발을 앞세우며 함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은 행사의 진행 자체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두고 일부는 시대의 흐름이니, 신세대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느냐니 하고 관망하지만 이것만이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대학풍토만을 향수하고 고집하는 것 또한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것이다.

그러면 해결점은 없는 것일까? 댄스 클럽에도 우리 신세대 대학생들은 ‘동호회 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음악, 연극, 영화, 문학 또는 영어회화, TOEIC 등의 동아리를 비롯해 심지어는 게임을 좋아하는 소모임까지 있기도 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한다는 것에서 오는 동질감이 또 하나의 소속감을 낳게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한다면 더 이상의 아웃사이더는 없으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소모임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모임들이 폐쇄적이지 않으며, 개방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우리 학내의 개인주의가 사라지지 않을까?

구진희(국문)



동약광장

목격길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진희 선배 생일 축하해요. -종택 △현경이의 COME BACK을 축하하며 “방학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구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다” -RING △유미야, 생일 늦게라도 축하한다. -민사 99학번 △기영이형의 코스모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일문99 병훈, 진이, 수근, 요섭, 금원, 지연, 여나, 헤리, 주연 왕창 축하!! 방학중에 생일이라 슬펐잖아. 유렀다구요? -누군지 일취~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대축전에 다녀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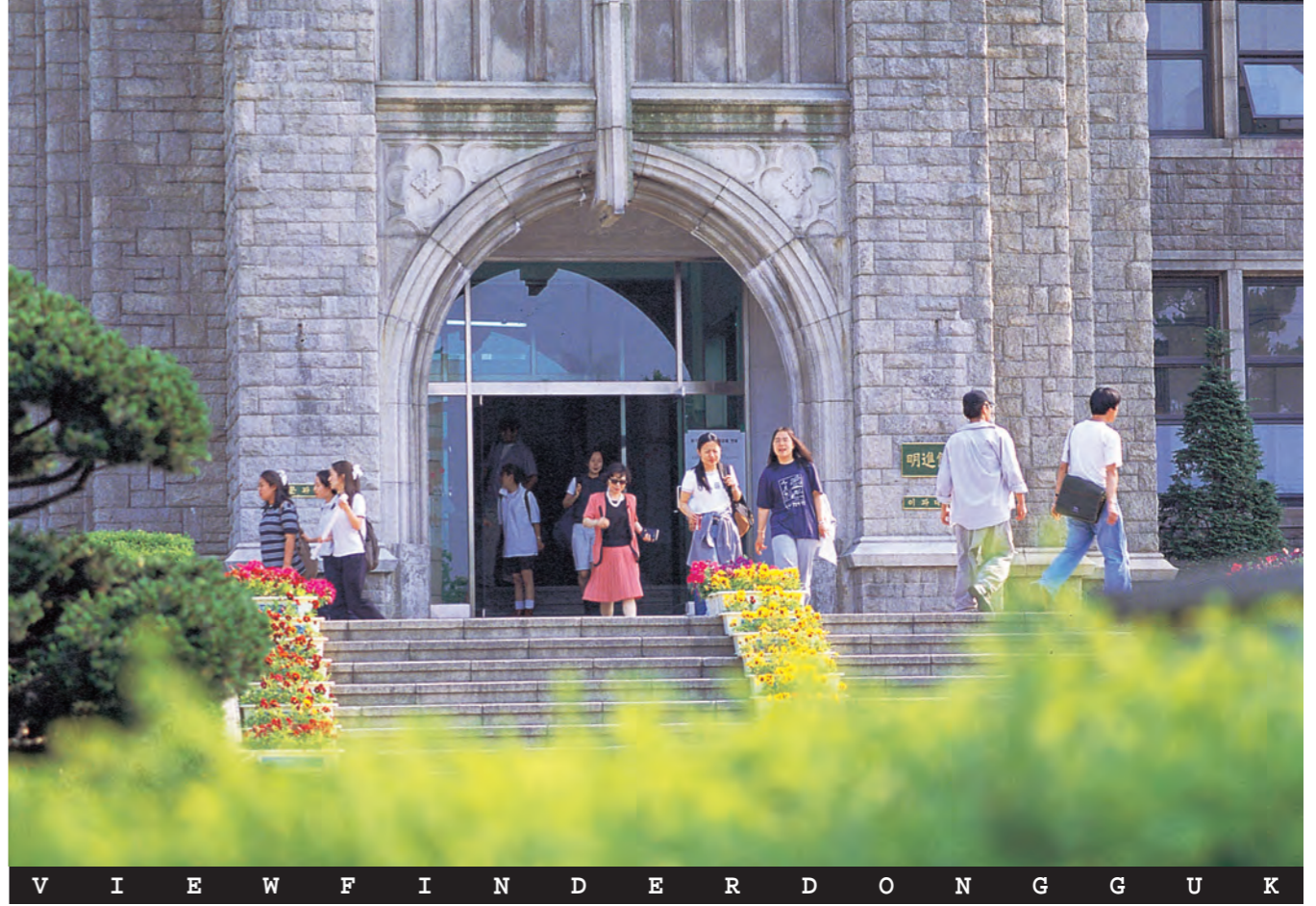
△승일야. 모의고사 잘했다고... 오오(감탄! 감탄!) 남은 80여일 재수 생활 열심히해. -지선 △동국 문화회 식구들 기운 바짝내서 삽시다. -삼순 △M. C. F(Mung Chin Five) 결성됐습니다. 수괴님 모범따라 열심히 뻘시다오. -머리 △아! 민족나이트도 결성됐는지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벼봅시다.

알립니다

△동국POST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장됩니다. -동국 POST

그리고...

△효익야, 너 군대간다며? 어떻게 이럴수가~ 방학동안 연락 한번 안하구... 배신이야 배신. -10000



개강...

무던히도 덥더니만 어느새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새학기에는 바쁘게 살아야겠다. 틈틈이 가을편지도 쓰면서... 촬영=송광수 동문

농활 ...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과의 열흘 생활 “‘농가부채해결’ 대선공약 지켜지길 바란다”

농활을 다녀온 지 어느새 두달이다. 농활은 농촌봉사활동이 아니라 농민학생연대 활동이라며 농가부채나 협동조합문제 등을 공부하던 것이 어찌 같은데 벌써 두달이러니.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 못한 농활이었지만 9박 10일이란 시간 동안 그분들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동화되어 가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아울러 그러한 것들의 생산을 가로막는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민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마냥 떨어질 줄 모르는 농가부채는 이미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 내에 대형화되었다.

이것은 정부나 학교에서 나오는 책자를 통해서 본 농촌이 아니라 오이의 잔가지 치며 담뱃값을 따며 고추밭에 비료를 뿌리며 만났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이야기였다.

농활대원으로 9박 10일 동안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정말로 놀랐던 것은 그분들의 성실함이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들의 근면함에 새벽 6시 기상시간조차 지키지 못해 발발대란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데도 나아질 줄 모르는 그분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발생한 농가부채는 개인의 근면함과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마냥 뜨거운 태양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하며 뒹던 오이가 하나에 백원도 못 받고 넘어갈 땀 눈물이 다 날 것 같았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임금은 고사하고 비료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려가니 농민들의 쓰라린 속이아 짧은 이 글 안에 다 표현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WTO출범과 OECD가입으로 농촌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속에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김대통령은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가 재발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재발의 부채탕감에 앞서 농가부채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서현경(동국문학회)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PC ID: 동대신문 천리안 PC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제육김치볶음, 오징어가스, 콜뱅이소면무침, 미역볶음밥, 개살간통기, 잡채밥, 불고기비빔밥, 후랑크야채볶음, 콩나물볶음밥, 연두부백반)

(단위: 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두부김치, 닭개장, 카레라이스, 열무비빔밥, 모듬소스볶음밥, 고구마비빔밥, 떡볶이백반, 비엔나야채볶음, 소고기잡채밥, 삼선짬뽕국밥)

(단위: 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nd Menu items (두부된장국, 김치만두전골, 김치볶음밥, 잡채덮밥, 쇠고기무국, 미역냉국, 오징어덮밥, 전주비빔밥, 아욱국, 제육김치찌개, 돈육덮밥, 스테이크/과일, 북어채국, 쇠고기살피파, 돈까스, 쇠고기볶음밥, 오징어무국, 콩나물볶음, 햄볶음밥, 히라라이스, 유부된장국, 쇠고기덮밥, 근대국, 김치볶음밥)

(단위: 원)